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에 대한 연구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方 園

#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성 규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방 원

방원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원장 정 승 철



부위원장 이 진 호



위원 김 성 규



## <한국어 초록>

###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에 대한 연구

방 원

이 논문은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목록, 어기와 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언 분포나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7-1995)의 《韓國方言資料集》과 국립국어원(2004-2013)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에 실린 각 어형들을 분석하여 전국 방언의 사동파생접미사 목록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언 지도를 통해서 각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피·사동 파생은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접미사의 목록과, 어기와 접사의 결합에서 볼 수 있는 음운론적 또는 형태론적 조건이 다르다. 특히 피동사에 비하여 사동접미사의 목록이 더 다양하고 방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보인다. 아울러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이 더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정 지역어의 사동접미사 양상과 관련된 논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사동접미사의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연구하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집》과 《보고서》는 약 20~30년의 조사 시기의 격차가 있다. 두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현대 한국어의 사동사와 사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모든 사동사를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사동접미사의 목

록에 따라 ‘-이-’계와 ‘-우-’계를 분류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소결에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두 자료의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어: 현대 한국어, 사동접미사, 방언 분포, 파생, 개신지, 결합 양상, 접미사 목록.

학번: 2016-27646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자료 수집 .....	2
1.3. 기존의 논의 .....	4
1.4. 논의의 구성 .....	8
2. 한국어 방언의 사동사와 사동접미사 .....	10
2.1. 한국어의 사동과 사동법 .....	10
2.2.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 .....	12
2.2.1. ‘-이-’와 ‘-이우-’ .....	15
2.2.2. ‘-히-’ .....	19
2.2.3. ‘-리-’와 ‘-리우-’ .....	22
2.2.4. ‘-기-’, ‘-키-’ .....	27
2.2.5. ‘-지-’ .....	34
2.2.6. ‘-우-’ .....	36
2.2.7. ‘-구-, -쿠-’ .....	37
2.2.8. ‘-후-, -추-’ .....	41
2.2.9. ‘-애-’ .....	44
2.2.10. 소결 .....	44
3.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변화 .....	50
3.1. ‘-이-’계 사동접미사 .....	50
3.1.1. ‘-이-’와 ‘-이우-’ .....	50
3.1.2. ‘-히-’ .....	52

3.1.3. ‘-리-’와 ‘-리우-’ .....	58
3.1.4. ‘-기-’ .....	59
3.1.5. ‘-키-’ .....	64
3.1.6. ‘-지-’ .....	66
3.1.7. 소결 .....	67
3.2. ‘-우-’계 사동접미사 .....	69
3.2.1. ‘-우-’ .....	69
3.2.2. ‘-구-, -쿠-’ .....	70
3.2.3. ‘-후-’ .....	78
3.2.4. ‘-추-’ .....	91
3.2.5. 소결 .....	91
4. 결론 .....	95
참고문헌 .....	98
<中文摘要> .....	102

# 1. 서론

## 1.1. 연구 목적

한국어의 피·사동은 국어학의 여러 연구 주제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것들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대 한국어에서 피·사동 파생은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접미사의 목록과, 어기와 접사의 결합에서 볼 수 있는 음운론적 또는 형태론적 조건이 다르다.<sup>1)</sup> 특히 피동사에 비하여 사동접미사의 목록은 더 다양하고 방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보인다. 아울러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은 더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표준 한국어의 피동사에서는 ‘-이-, -히-, -리-, -기-’ 등 ‘-이-’계 피동접미사만 존재하는 반면에 사동접미사는 ‘-이-’계열 접미사와 ‘-우-’계열 접미사, 그리고 ‘-이우-’가 존재하고 자동사 어기, 타동사 어기,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sup>2)</sup> 다만 ‘-우-’계 접미사는 특정한 어기에만 결합하는 경우가 많고 생산성이 낮다.

지금까지 특정 지역어의 사동접미사 양상과 관련된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공시적으로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사동접미사의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연구하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는 두 자료는 조사 시기의 차이로 조사 결과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조사 결과의 차이

---

1) 본고는 이익섭·채완(1999)의 논의를 따르기로 한다. 단어 형성의 과정은 파생과 합성으로 나뉜다. 파생에서 단어는 어기와 접사로 구분된다. 이때 어기는 단어의 중심부를 형성하는 형태소이며 접사는 단어의 주변부이다. 어기는 어근 또는 어간을 포괄하는 이름이 되는데 어근이 될 수도 있고 어간이 될 수도 있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로, 의존적이고 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형태소를 말한다. 반면에 어간은 어미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 부분이다.

2) 일부 ‘없애다’에서 ‘-애-’와 같은 접미사에 의해 파생되는 파생어가 하나뿐이어서 생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20~30년 간의 방언에서의 한국어 사동사의 변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 한국어 사동접미사의 목록, 어기와 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언 분포나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자료의 사동사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사동사의 변화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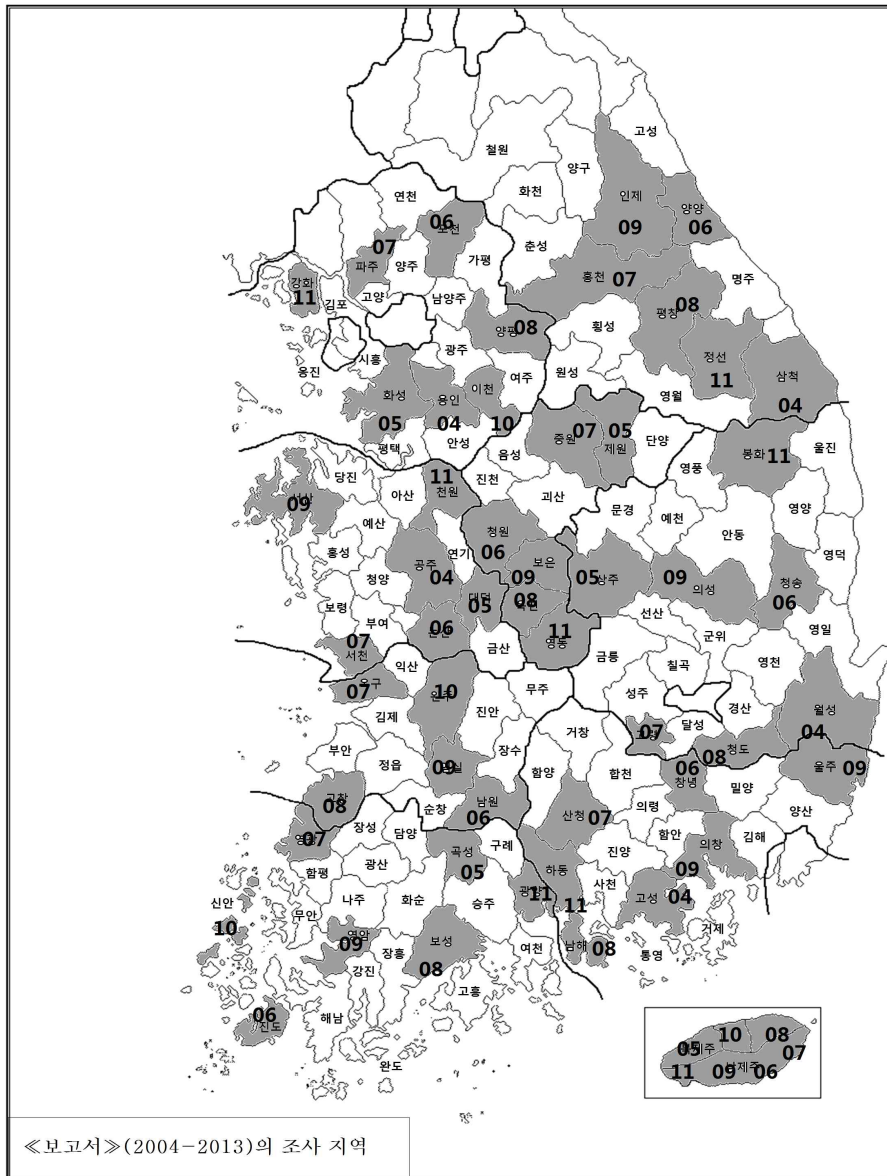
## 1.2. 자료 수집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 방언의 사동과생어이다. 자료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7-1995)의 《韓國方言資料集》(이하 《보고서》)과 국립국어원(2004-2013)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주된 자료로 삼고 각 지역어 논문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자료집》이나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 대신에 통사적인 사동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이들을 제외시킨다.

《자료집》과 《보고서》는 약 20~30년의 조사 시기의 격차가 있다. 두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지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자료집》은 전국의 군 단위를 모두 대상으로 한 반면, 《보고서》는 일부 지역만 보고되어 있다. 《보고서》의 조사 지점은 지도로 나타내면 [지도1]과 같다.

[지도1] 《보고서》의 조사 지점



한편, 북한 방언의 사동사는 많은 경우에 남한 일부 방언의 사동사 양상과 비슷한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남한 방언의 피·사동사와 비교하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방언의 사동사의 수집은 주로 《함북방언사전》(김태균, 1983), 《평북방언사전》(김이협, 1981)과 북한이나 중국 조선족 방언과 관련된 논문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방언에서 공시적으로 사용되는 사동 파생접미사이지만 통시적인 자료 역시 필요한 경우에 제시할 것이다. 이때 주로 참조하는 문헌자료는 중부 방언을 반영한다고 보이는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의 자료이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지도는 군(郡)을 기준 단위로 하였고 [지도]에서 사용된 기호에 대한 범례나 설명은 각 지도에 제시하였다. 동일한 방언형의 분포가 두 자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은 지도에 따로 표시하였다.

### 1.3. 기존의 논의

한국어의 피·사동은 국어학의 여러 연구 주제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것들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주로 사동파생어와 관련되는 논의를 살펴보겠다.

송철의(1992)에서는 공시적으로 피·사동파생어 형성과정의 음운론적인 제약, 형태론적인 제약, 의미론적인 제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의 피·사동사 파생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안병희(1959), 남광우(1962), 허웅(1975), 이상억(1980), 한재영(1984), 김주필(1988), 고영근(1997), 구본관(1998), 이기문(1998), 장윤희(2015), 조성금(2015) 등이 있다. 15세기 중세 한국어의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은 ‘-이-’계와 ‘-오/우-’계가 있다. 사동접미사 이형태의 목록은 피동접미사에 비해서 논의에 따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다음 [표1]과 같다.

[표1] 중세국어 사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

중세국어 사동접미사의 이형태 목록	
목록	출처
-이-, -오-, -이오-	안병희(1959)
-이-, -애-, -히-, -기- -호/후-, -고/구-, -오/우-, -붕/브-, -으/으-, -ㅣ 오/ㅣ 우-, -외/위-	이상억(1980)
-이-, -히-, -기- -오(ho)/우(hu)-, -호/후-, -으/으-	고영근(1997)
-이(i)-, -이(hi), -ㅣ(j)-, -히-, -기- -오(o)/우(u)-, -오(ho)/우(hu)- -호/후-, -고-	구본관(1998)

구본관(1998)에서는 ‘-i-’, ‘-hi-’와 더불어 ‘-j-’도 사동접미사의 일부로 포함시켰다.<sup>3)</sup> 이에 따르면 사동의 ‘-이-’가 피동의 ‘-이-’와는 달리 ‘ㄹ’로 끝나는 어기와 통합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i’를 가지나, 일부의 경우에만 ‘hi’로 나타난다. ‘-오/우-’계 사동접미사는 ‘太子 | 道理 일우샤 (석보상절, 6: 5b)’와 같이 ‘일-’에 해당하는 사동사가 ‘이루-’가 아니라 일우-’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구본관(1998)에서 ‘-오/우-’와 ‘-오/우(ho/hu)’를 각각 나누어서 설정하였다.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피·사동 파생법이나 파생접미사에 관하여 공시적으로 다룬 형태론적인 연구는 음운론적 연구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 정승철(2007)에서는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해당 피동사와 피동접미사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전국의 방언권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논의하였다.

한편, 방언의 피·사동 파생어 양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경기, 충청> 등 중부방언권은 표준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피·사동파생어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없다. 반면에 동남방언이나 동북방언은 피·사동파생에서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3) 김한결(2007)에서는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 ‘i’가 모음으로 끝나는 선행요소와 통합할 때, 거의 예외 없이 활음화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ㅣ’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많다.

[표2] 남한 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와 관련된 논의

남한 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와 관련된 논의 <sup>4)</sup>					
강원	경기,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은상현(2006) 김옥영(2013)	×	정성경(2003) 이기갑(2005) 김웅배(1971)	김차균(1992) 김세환(2012) 김세환(2014)	구본관(1990)	송상조(1991)

김세환(2012, 2014)에서는 경북 방언의 피·사동파생어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경북 청송지역어의 피동 어기의 ‘-아-’계 어미 결합형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접미사가 ‘-에-, -예-, -해-, -레-, -게-’로 변화한 경우를 살펴보고 파생어를 재분석하여 새로운 접미사 ‘-키-’가 형성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구본관(1990)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경주방언의 피동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사동사의 양상이 더 불규칙적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사동사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 방언이나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피·사동파생어 연구는 주로 함경도나 평안도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표3] 북한 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와 관련된 논의

북한 방언의 피·사동파생접미사와 관련된 논의	
함경도	평안도
김태균(1983), 광충구(1991, 2004, 2014) 이춘영(2016), 정향란(2004, 2007), 임홍연(2015)	정의향(2010)

광충구(2004)는 함북 방언의 피·사동사를 고찰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파생어는 기존 파생어를 기반으로 한 유추에 의한 것임을 밝혔으며 비록 공식적

4) ×: 해당 지역어와 관련된 음운론적 논의는 많이 있지만 형태론적 연구, 특히 피·사동파생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인 과정은 아닐지라도 파생접미사가 어기와 결합할 때 일정한 형태론적, 음운론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함경도나 평안도 방언의 피·사동파생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4] 북한 방언 피·사동파생어의 특징

북한 방언 피·사동파생어의 특징		
방언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특징	<p>(1) 피동사에서 말음 ‘ㄹ’에 접미사 ‘-기-’와 결합하고 ‘-기-’의 사용 범위가 이 지역어에서 훨씬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p> <p>(2) 사동이나 피동에 모두 ‘-구-’ 접미사가 존재한다(ex. 끄슬구다(그을리다))<sup>5)</sup>.</p>	<p>(1) 유성음 특히 ‘ㄹ’로 끝나는 어기에 주로 ‘-구~쿠-’가 결합된다.</p> <p>(2) 피동접미사에도 ‘-우-’, ‘-이우-’가 활발하게 쓰인다. 중부방언의 피동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p>

북한 방언에서는 ‘-우-’계열 접미사가 피동파생어에서만 아니라 ‘-우-’가 ‘-이-, -히-, -리-, -기-’ 등 ‘-이-’계 접사에 덧붙여 형성된 이중접사로도 나타난다. ‘x우’ 형태가 <함경도, 평안도> 등의 지역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우-’가 붙지 않는 형태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북한의 ‘-우-’ 접사 중첩 형태에 대해 ‘피동성이나 사동성을 강조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함북 방언의 ‘-X우-’가 의미적으로 ‘완료의 의미’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곽충구(1991)에서는 함북 육진 방언의 피·사동파생에서 어기의 악센트 유무에 관계없이 파생된 피·사동사의 악센트는 언제나 최종의 접미사에 놓인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1차 파생에 이어 다시 파생접사가 파생된 경우에는 악센트가 최종접사 ‘-우-’ 쪽에 놓인다(불들리다 ⇒ 불들리우

5) 정용호(1988)에서는 함경도 방언에서 아래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은 접미사 ‘-구-’가 사동이나 피동의 접사로서 구실하는 외에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단어조성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밥이 설다’-‘밥을 설구다’//‘땅이 질다’-‘땅을 질구다’

다).

또한 함북 방언에서는 사동뿐만 아니라 피동사에서도 ‘ㄹ’말음 여기에 거의 ‘-기-’접미사가 통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용호(1988)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단어에서 “역사적인 발음 ‘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는 어휘적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함북 방언의 체언이나 용언에서 ‘ㄹ’이 많이 확인되는데,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만 나타난다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다.

(1) (ㄱ) 모음과 모음사이: 개굴(개울)

(ㄴ) 모음과 유음사이: 갈기(가루), 놀기(노루), 물개(모래), 멀기(머루),  
술기(수레), 잘기(자루), 걸금(거름), 벌기(벌레)

이상으로 사동파생어와 관련되는 공시적이나 통시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방언과 관련되는 논의도 살펴보았다.

표준 한국어에서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는 목록으로부터 결합 양상까지 여러 공통점을 보이고 동일한 어기에 파생된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방언에서 피동사에 비하여 사동사의 목록이 더 다양하고 결합 양상이 더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의 사동사 양상과 관련되는 논의가 피동사에 비하여 많지 않고 특히 전국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공시적으로 방언에 따라 사동파생어의 양상을 살피고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 시기의 차이로 나타나는 두 자료집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20~30년 간에 사동접미사의 변화를 밝히려고 한다.

##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자료집》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국 방언의 사동접미사 목록과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언 분포와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히려고

한다.

제1장은 서론이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현대 한국어의 사동사와 사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본다. 2.2.에서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모든 사동사를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사동접미사의 목록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에 따라 방언 분포와 분포의 변화를 밝힌다. 3.1.에서 ‘-이-’계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결합 양상을 제시하고 3.2.에서 ‘-우-’계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두 자료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사동접미사 분포의 변화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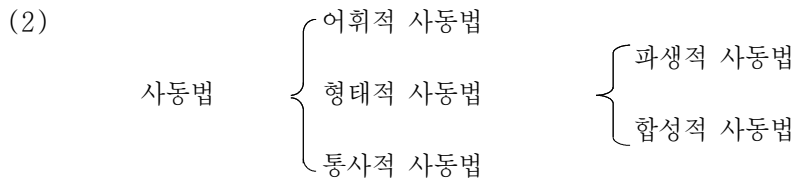
제4장은 결론이다.



## 2. 한국어 방언의 사동사와 사동접미사

### 2.1. 한국어의 사동과 사동법

한국어에서 사동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는지에 대해 최현배(1971)에서는 첫째 하임법(사동보조어기 ‘-이-, -리-, -우-, -기-, -히-, -후-, -키-, -구-’에 의하여), 둘째 하임법(‘-시키다’에 의하여), 셋째 하임법(‘-게 하다’에 의하여)으로 분류하였고, Comrie(1989)에서는 어휘적 사동법, 형태적 사동법, 통사적 사동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의 사동법의 실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3ㄱ)과 같이 단순 어휘 자체에 사동의 의미를 갖는 어휘 갖는 어휘 사동사에 의한 사동법을 실현하는 것을 어휘적 사동법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3ㄴ)은 장형사동, 또한 통사적 사동법이라고 한다. 즉, 내포 의미에 의한 내포문이 상위문 동사에 내포된 구성으로 사동법을 실현한다. 이러한 구성으로는 ‘-게 하-, -게 만들-, -도록 하-, -도록 만들-’ 등이 있다.

(3) (ㄱ) 어머니께서는 철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ㄴ)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게 하셨다.

한편, 형태적 사동법은 사동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파생적 사동법과 합성적 사동법으로 나눌 수 있다. 파생적 사동법은 (4)와 같이 각각 자동사나 타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사동접미사를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합성적 사동법은 (5)와 같이 주로 ‘-하다’류 명사에 ‘-시키다’를 결합시켜 합성어를 만들어 내어 사동법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4) (ㄱ) 영화가 길을 넓혔다.(형용사 여기 + ‘-이-’계 접미사)

(ㄴ) 영화는 불고기를 익혔다.(자동사 여기 + ‘-이-’계 접미사)

(ㄷ)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타동사 여기 + ‘-이-’계 접미사)

(5) 구체화시키다, 단순화시키다, 바느질시키다, 공부시키다, 걱정시키다...

사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표5] ‘사동’의 개념

사동의 개념	
최현배(1971)	다른 것으로 하여금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것, 월의 임자가 직접적으로 바탕스런(실질적)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그 움직임을 하게 하는 꼴스런(형식적) 움직임.
허웅(1975)	하임의 주체(시키는 사람)가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의 하임 말에 있어서는, 하임의 주체는 실지 행동을 하지 않고, 실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은 시킴을 받는 사람이다.
이 익 섭 · 임 홍 빈 (1983)	사동은, 어떤 인물, 즉 사동주(causer)가 다른 인물, 즉 피사동주(causee)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태의 일종으

	로서, 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문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의 어기에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이)우-, -구-, -추-’ 등이 결합된 사동사에 의하여 형성된다.
권재일(1992)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개의 상황을 하나의 복합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

따라서 사동은 태의 하나로써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사동파생어를 대상으로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조사된 사동사의 양상을 보면 표준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

## 2.2.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

이 절에서는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 목록을 제시하고 어기와 접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조사 항목을 표준어의 형태에 따라 제시하고 조사된 방언형을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접미사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다.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이 표준어에서 ‘-이-, -이우-, -히-, -리-, -기-, -우-, -후-, -애-’ 등의 사동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된다.

### i. ‘-이-’와 ‘-이우-’:

- |                        |            |
|------------------------|------------|
| 1). 먹다(食) → 먹이다, 밥을 ~  | 《자료집》      |
| 2). 높다(高) → 높이다, 천장을 ~ | 《자료집》      |
| 3). 닦다(揩) → 닦이다, 장판을 ~ | 《자료집》      |
| 4). 녹다(溶) → 녹이다, 얼음을 ~ | 《자료집》《보고서》 |
| 5). 삭다(消) → 삭이다, 음식을 ~ | 《자료집》      |

6). 속다(欺) → 속이다, 사람을 ~	《자료집》
7). 끓다(沸) → 끓이다, 물을 ~	《자료집》
8). 놀라다(驚) → 놀라이다(놀래다)	《자료집》
9). 눕다(臥) → 누이다(눕다), 자리에 ~	《자료집》
9). 들다(入) → 들이다, 친구를 방에 ~	《자료집》
10). 뜨다(浮) → 띄우다, 강물 위에 배를 ~	《자료집》
11). 자다(眠) → 재우다, 아이를 ~	《자료집》
12). 쓰다(使書) → 씌우다, 글씨를 ~	《자료집》
13). 보다(見) → 보이다, 선을 ~	《보고서》

ii. ‘-히-’:

1). 넓다(廣) → 넓히다, 길을 ~	《자료집》
2). 식다(冷) → 식히다, 열정을 ~	《자료집》
3). 썩다(腐) → 썩히다, 거름을 ~	《자료집》《보고서》
4). 묵다(置) → 묵히다	《자료집》
5). 잡다(捕) → 잡히다, 아이에게 연필을 ~	《자료집》
6). 밝다(明) → 밝히다, 어둠을 ~	《자료집》
7). 읽다(讀) → 읽히다, 책을 ~	《자료집》
8). 묻다(染) → 묻히다, 손에 흙을 ~	《자료집》
9). 앉다(坐) → 앉히다, 의자에 ~	《자료집》《보고서》
10). 눕다(臥) → 눕히다, 침대에 ~	《자료집》
11). 굽다(曲) → 굽히다, 허리를 ~	《자료집》
12). 입다(服) → 입히다, 옷을 ~	《보고서》

iii. ‘-리-’:

1). 알다(知) → 알리다, 소식을 ~	《자료집》《보고서》
2). 얼다(凍) → 얼리다, 물을 ~	《자료집》《보고서》
3). 말다(禁) → 말리다, 싸움을 ~	《자료집》《보고서》

- 4). 돌다(廻) → 돌리다, 바퀴를 ~ 《자료집》
- 5). 빨다(吮) → 빨리다, 아이에게 젖을 ~ 《자료집》
- 6). 구르다(轉) → 굴리다, 바퀴를 ~ 《자료집》
- 7). 마르다(乾) → 말리다, 빨래를 ~ 《자료집》《보고서》
- 8). 걷다(步) → 걸리다(걸게 하다) 《자료집》
- 9). 싣다(載) → 실리다(싣게 하다) 《자료집》
- 10). 살다(生) → 살리다, 사람을 ~ 《보고서》
- 11). 늘다(增) → 늘리다, 학생 수를 ~ 《보고서》

iv. ‘-기-’:

- 1). 벗다(脫) → 벗기다, 껍질을 ~ 《자료집》《보고서》
- 2). 맡다(任) → 맡기다, 신분증을 ~ 《자료집》
- 3). 뜯다(擄) → 뜯기다 《자료집》
- 4). 옮다(移) → 옮기다[옹기다], 환자를 병원으로 ~ 《자료집》
- 5). 숨다(隱) → 숨기다[송기다], 사실을 ~ 《자료집》《보고서》
- 6). 신다(履) → 신기다, 신발을 ~ 《자료집》《보고서》
- 7). 감다(洗) → 감기다, 머리를 ~ 《자료집》
- 8). 튀다(彈) → 튀기다, 벽에 공을 ~ 《자료집》
- 9). 웃다(笑) → 웃기다, 사람을 ~ 《보고서》
- 10). 굶다(飢) → 굶기다[궁기다], 점심을 ~ 《보고서》

v. ‘-우-’:

- 1). 메다(充) → 메우다, 구멍을 ~ 《자료집》
- 2). 깨다(覺) → 깨우다, 잠을 ~ 《보고서》
- 3). 돋다(昇) → 돋우다, 호기심을 ~ 《보고서》

vi. ‘-후-’:

- 13). 맞다(合) → 맞추다, 줄을 ~ 《자료집》

14). 낮다(低) → 낮추다, 목소리를 ~

《자료집》

vii. ‘-애-’:

1). 없다(無) → 없애다, 범죄를 ~

《자료집》

이들 각각에 대하여 전국 방언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형태분석을 바탕으로 사동접미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사동사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앞에 논의하였듯이 《보고서》는 2004~2013년에 조사된 것이라서 《자료집》과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두 자료를 분류하여 제시한다. 표준어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방언형에 대해서는 각주에 그 지역 분포를 제시하기로 한다.<sup>6)</sup>

### 2.2.1. ‘-이-’와 ‘-이우-’

‘-이-’계 사동접미사는 ‘-이-, -이우-, -히-, -리-, -기-, -키-, -지-’ 등이 있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이-’와 ‘-이우-’는 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열음 중에 경음이나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평파열음 중에서는 ‘ㄱ’말음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통시적으로 ‘-이-’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접미사이다.

먼저 ‘-이-’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ㄱ)은 평파열음 ‘ㄱ’이나 경음,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예들이다. (6ㄴ)은 표준어에서는 ‘-히-’와 결합하지만 방언에서는 ‘-이-’가 결합한 것이다.

---

6) 《자료집》과 달리 《보고서》는 정해진 지역에서만 조사된 것이다. 각 방언형의 분포 지역을 각주에 표시했다.

- (6) (ㄱ) 맥이다~믹이다~먹이다(먹이다, 食)  
 녹이다~녹이다(녹이다, 融)  
 삭이다~색이다(삭이다, 消)  
 닦이다~땃이다~땡이다~땡이다(닦이다, 揩)  
 높이다~뿔이다(높이다, 高)
- (ㄴ) 식이다~씩이다(식히다, 冷)<sup>7)</sup>  
 썩이다~씩이다(썩히다, 腐)<sup>8)</sup>  
 묵이다~믹이다(묵히다, 置)<sup>9)</sup>

(6ㄱ)은 ‘맥~먹~믹-이-’, ‘녹~녹-이-’, ‘삭~색-이-’, ‘닦~땃~땡~땡-이-’, ‘높~뿔-이-’로 분석된다. ‘맥이다, 믹이다’는 ‘먹이다’의 음라우트형이다. 각 지역어의 모음체계에 차이가 있어서 음라우트의 동화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표준 한국어에서는 ‘먹다’의 사동형과 피동형이 ‘먹이다’와 ‘먹히다’로 서로 구분되어 쓰인다.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방언에서 ‘먹다’의 사동형이 모두 ‘먹이다’로 나타나지만 <충북> 전역에서는 피동형도 ‘먹이다’로 나타난다. <충북>방언에서만 ‘먹다’의 사동형과 피동형이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다.

‘닦이다’는 많은 방언에서 음라우트를 겪어서 ‘땃이다’로 나타나는데, <경북, 경남, 전남>의 일부 방언에서는 어두 경음화된 ‘땡이다~땡이다’로 나타난다. ‘높이다’는 ‘-이-’가 형용사 어기 ‘높-’에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거의 전국적으로 ‘높이다’가 나타난다.

(6ㄴ)은 ‘식-이-’, ‘씩~씩-이-’, ‘묵~뭉~믹-이-’로 분석된다. ‘씩다’의 사동파생어는 접미사 ‘-이-’에 의해서 파생된 ‘씩이다’와 접미사 ‘-히-’에 의해서 형성된 ‘씩히다’ 두 가지가 있다.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7) <강원 화천·양구·인제·춘성·평창·삼척>, <경북 울진·영덕·영일>, <제주>전역  
 8) <경기 파주·포천·강화·김포·양주·양평·화성>, <강원 철원·인제·고성·평창·명주·정선·삼척>, <충북 진천·음성·증원·제원·괴산>, <충남 당진·예산·공주>, <경북 울진·영덕>, <제주>전역  
 9) <경기 연천·파주·양주>,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춘성·홍천·횡성·평창·명주·정선>, <충남 예산·홍성·서천·대덕>, <경북 울진·예천·안동>, <전남 신안·무안·나주·영암·진도·강진·완도>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지닐 때만 ‘-이-’와 결합하여 파생한다. ‘씩이다’는 ‘씩이다’의 음라우트형으로 《자료집》에 따르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의 일부 하위 방언과 <제주> 전역에 나타난다. 그리고 ‘식이다’가 <강원, 경북, 제주> 등 많은 지역에 나타나는데, 일부 지역어에서는 어두 경음화가 된 ‘씩이다’가 나타난다. ‘묵-’은 표준어에서 ‘-히-’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반면에 여러 방언에서는 ‘-이-’ 결합형이 출현한다. 지역에 따라 ‘묵이-’의 음라우트형인 ‘뭉이-, 믱이-’ 등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 (6) (ㄷ) 끓이다~끓이다(끓이다, 沸)  
 뉘다(뉘다, 臥)  
 재다~재이다(재우다, 眠)  
 뜨이다(띄우다, 浮)

- (ㄹ) 없이다~없이다(없애다, 無)<sup>10)</sup>

(6ㄷ)은 ‘ㄹㅎ’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이다. (6ㄷ)은 ‘끓~끓-이-, 누-이-, 자-이-, 뜨-이-’로 분석된다. ‘끓이다’는 ‘끓이다’의 음라우트형이다. 표준어에서는 ‘자-, 뜨-’에 ‘-이우-’가 결합되는 사동사가 파생되는데 반해 방언에서는 파생된 어기에 다시 ‘-이-’가 결합되어 파생되는 경우가 있다. ‘뉘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활용어기 ‘누-’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누이-’의 축약형이고 ‘자리에 뉘다’와 같이 쓰인다.

‘-애-’는 한국어의 유일한 사동파생접미사인데 ‘없-’ 어기에만 결합된다. 그런데 <전북, 전남, 제주, 경북, 경남>의 하위 방언에서는 ‘없애다’ 대신에 ‘없이다’가 나타난다. 특히 <전라>에 가장 많이 출현된다.

‘-이우-’는 15세기에서의 모음이 ‘으, 으’인 어기에 결합된 ‘- | 오/- | 우’에서 변화한 것으로서 지금도 대체로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결합한다는 음운

10) <경북 영덕>, <경남 하동>, <전북 옥구·익산·완주·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광산·신안·나주·승주·광양·진도·강진·고흥·완도>, <제주 북제주>



론적 제약이 있다. 이상억(1980: 131)에서는 말모음이 ‘-으/으-’인 대부분의 어기에 ‘-ㅣ오/-ㅣ우-’가 연결된다고 하였다. 수집된 사동사를 살펴보면 모든 방언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이우-’가 결합할 수 있고 선행모음은 ‘아, 으’이다.

- (6) (口) 띄우다~떠우다(띄우다, 浮)  
재우다(재우다, 眠)  
씩우다~씩우다(씩우다, 使書)

(6口)은 ‘뜨-이우-, 자-이우-, 쓰-이우-’로 분석된다. ‘띄우다’와 ‘씩우다’는 ‘뜨-, 쓰-’에 ‘-이우-’가 결합한 후에 어두음절에서 단모음화를 겪은 형태이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한편, 《보고서》에서 수집된 방언형 중에 ‘-이-’에 의해 파생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 (7) (ㄱ) 녹이다~녹이다(녹이다, 融)<sup>11)</sup>  
씩이다~씩이다(씩히다, 腐)<sup>12)</sup>

- (ㄴ) 보이다~뵈다~베다(보이다, 見)<sup>13)</sup>

(7)은 ‘녹-이-, 씹~씩-이-, 보-이-’로 분석된다. (7ㄱ)은 ‘ㄱ’말음 어기에 결합한 것이고 (7ㄴ)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다. ‘녹이다~녹이다’는 ‘녹-’에 ‘-이-’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이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이다’와 같은 의미를 사용된다. ‘녹이다, 씹이다’는 ‘녹

11)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 <충남 서천·서산>,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기 포천·이천·양평>, <경북 청송>, <강원 양양·홍천·평창>, <제주 서귀포·구좌>

12) <경기 이천·양평>, <충북 제천>, <제주 한경·서귀포 포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경북 청송>, <강원 양양·홍천·평창>

13) <경기 화성·포천·과주·이천>,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 색달동·구좌>

이다, 썩이다’의 움라우트형이다.

《자료집》과 《보고서》에 보고된 ‘늑이다, 썩이다’의 분포 지역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자료집》에 따르면 <경북>방언에 ‘썩-’에 ‘-이-’ 결합형이 발견되지 않지만 《보고서》에서는 <경북 청송>에도 ‘썩이다’가 나타난다. 또한, 《자료집》에 따르면 <제주> 전역에서 ‘썩이~썩이-’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건입동>,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표준 한국어와 같이 ‘썩히다’가 사용된다. <제주 구좌읍>에서는 ‘썩-’ 어기에 ‘-히-’ 결합형과 ‘-이-’ 결합형이 모두 쓰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와 결합할 때만 움라우트형으로 나타난다. <제주> 방언에서 ‘썩-’에 ‘-히-’ 결합형은 신형으로, ‘-이-’ 결합형은 구형으로 볼 수 있다.

(8)                      썩키라/썩기라                      《보고서》:제주 구좌읍

‘보이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 ‘보-’에 ‘-이-’가 결합되어 파생된 것이다. 조사된 일부 지역에서는 ‘보-’에 ‘-이-’가 결합된 후에 모음 축약을 겪어서 형성된 ‘베~뵈다’도 실현된다.

## 2.2.2. ‘-히-’

‘-히-’는 동사나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전국 방언에서 주로 평파열음, 평파찰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9ㄱ)은 평파열음인 ‘ㄱ, ㄴ, ㄷ’ 말음 어기에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들이다. ‘-히-’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 (9)    (ㄱ)   늑히다~늑히다(늑히다, 臥)  
              묻히다(묻히다, 染)  
              식히다~썩히다(식히다, 冷)  
              썩히다~썩히다(썩히다, 腐)  
              잡히다~잡히다(잡히다, 捕)  
              읽히다(읽히다, 讀)

- (ㄴ) 녹히다~녹히다(녹이다, 溶)<sup>14)</sup>  
 삭히다~삭히다(삭이다, 消)<sup>15)</sup>  
 속히다~속히다(속이다, 歎)<sup>16)</sup>

(9ㄱ)은 ‘눅~눅-히-, 문-히-, 식~씩-히-, 씹~씹-히-, 잡~잡-히-, 읽-히-’로 분석된다. ‘눅-, 잡-, 문-’ 여기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히-’가 결합한다. 반면에 ‘ㄱ’ 말음으로 끝나는 ‘식-, 씹-’ 여기에는 방언에 따라 ‘-이-, -히-, -후-’가 결합되어 파생된 사동사들이 분포된다. ‘읽히다’는 ‘읽-’에 ‘-히-’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9ㄴ)에서 보듯 일부 방언에서는 ‘-히-’와 결합하여 형성된 ‘녹히-, 삭히-, 속히-’가 출현한다. ‘색히-, 뇌히-, 석히-’는 이들의 음라우트형이다.

다음은 형용사 어기 ‘굽-, 넓-, 밝-’에 ‘-히-’가 결합한 예들이다.

- (10) 굽히다~굽히다(굽히다, 曲)  
 넓히다(넓히다, 廣)  
 밝히다(밝히다, 明)

(10)은 ‘굽~굽-히-, 넓-히-, 밝-히-’로 분석된다. ‘-히-’는 패쇄음이나 ‘ㄹ, ㄹ’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넓히다’는 ‘공간을 넓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밝히다’는 ‘밝게 하다’ 혹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 분명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넓히다(넓-)’의 방언형을 살펴보면 파생어기의 말음이 ‘ㄹ’이나 ‘ㅂ’의 경우에 대부분 지역어에서 ‘-히-’로 통합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많은 방언에서 ‘너르다’가 ‘너리고, 너리니, 너러’의 활용 패러다임을 보여 불규칙적인 활용을 한다. 이 어기의 기저형은 ‘너리-/너르-’인데 방언에 따라 ‘-구/쿠/추-’ 등

14) <경기 파주·화성>, <충북 단양·청원·옥천>, <충남 당진·홍성·보령·논산·대덕·금산>, <경북 영풍·안동·상주·금릉>, <경남 밀양·의령·고성>, <전북 익산·부안·임실·남원>, <전남 장성·곡성·구례·광산·화순·승주·광양·완도>  
 15) <경기 연천·화성·고양·김포>, <강원 정선·영월>, <충북 단양·제원·음성·청원·옥천·영동>, <충남 서산·부여·논산>, <경북 영풍·봉화·안동·영양·영천>, <전북 남원>, <전남 해남>, <제주> 전역  
 16) <경기 고양·응진>, <충남 아산>, <경남 의령·의창·고성>, <전남 나주·화순·고흥>

다양한 접미사가 결합된 사동사가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파생어기의 차이가 난다.

(11)	파생어기	접미사	분포지역
(ㄱ)	ㅂ(래)	-이-	<전북 옥구·익산>, <전남 고흥·진도·무안·광산>, <강원 홍천>
		-후-	<경남 합천>
(ㄴ)	너르-	-리-	<경기 시흥·광주>, <충북 괴산>, <경남 김해·남해>,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부안·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정선·영암·광양·무안·함평·구례>, <제주 북제주>
		-구-	<강원 철원·화천·평창>, <충북 제원·영동·옥천>, <경북 울진>
		-쿠-	<경기 이천>, <강원 인제·원성·정선>, <경남 산청·진양·양산·사천·거제>, <전북 장수>
		-추-	<전남 승주>

‘-히-’는 한편 파찰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12)는 ‘앉-히-’, ‘맞-히-’로 분석된다. ‘앉히다’는 ‘앉-’에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고 ‘앉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표준어에서는 ‘맞-’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맞후다(맞추다)’로 나타나지만 <경기, 강원, 충북, 전남>에서는 ‘-히-’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형성된다.

- (12) (ㄱ) 앉히다(앉히다, 坐)  
(ㄴ) 맞히다(맞후다, 合)<sup>17)</sup>

한편, 《보고서》에서 ‘-히-’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17) <경기 강화·고양·양주·남양주·광주·평택>, <강원 양양>, <충북 옥천·영동>, <전남 영광·함평>, <전북 고창·순창>

- (13)        썩히다~썩히다(썩히다, 腐)<sup>18)</sup>  
               녹히다~녹히다(녹이다, 融)<sup>19)</sup>  
               입히다(입히다, 服)<sup>20)</sup>  
               앉히다~(앉히다, 坐)<sup>21)</sup>

(13)은 ‘썩~썩-히-, 녹~녹-히-, 입-히-, 앉-히-’로 분석된다. ‘썩히-~썩히-’는 ‘썩~썩-’에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고 ‘썩히다’는 ‘썩히다’의 음라우트형이다. ‘녹히다’는 <전북, 전남, 경남> 등의 지역에서 분포된다. ‘입히다’는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표준어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나타나거나 ‘-어주다’ 구문으로 실현된다.

- |      |     |            |               |
|------|-----|------------|---------------|
| (14) | (ㄱ) | 저 애기 온 입찌라 |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 |
|      | (ㄴ) | 옷을 입퍼주라    |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

### 2.2.3. ‘-리-’와 ‘-리우-’

접미사 ‘-리-’는 16세기 말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기주연 1994:198) 동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리-’는 유음으로

18) <경기 화성·포천·파주>, <충북 제천·충주>, <충남 서천·서산·예산>, <전북 고창>, <전남 영광>, <경북 의성>, <강원 양양·인제>, <제주 서귀포·구좌>

19) <경기 화성·파주>,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충남 대전·논산·예산>, <전북 남원·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보성>, <경남 창원>

20)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서귀포>

21) <경기 화성·포천·파주·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 <경남 원주·양양·산청·남해>, <제주 서귀포>

끝나는 어기나 ‘ㄷ’불규칙 용언, ‘ㄹ’불규칙 용언 어기에만 결합한다. 먼저 ≪자료집≫에서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리-’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돌리다(돌리다, 廻)  
 말리다(말리다, 禁)  
 빨리다(빨리다, 吮)  
 알리다(알리다, 知)  
 얼리다(얼리다, 凍)

(15)는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이고 ‘돌-리-, 말-리-, 빨-리-, 알-리-, 얼-리-’로 분석된다.

‘말리다’는 ‘말-’에 ‘-리-’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것이고 ‘싸움을 말리다’와 같이 쓰인다.

‘-리-’는 다음 (16)과 같이 ‘ㄷ’불규칙 용언 어기, ‘ㄹ’불규칙 용언 어기에도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 (16) (ㄱ) 걸리다(걸리다, 步)  
 실리다(실리다, 載)  
 (ㄴ) 굴리다(굴리다, 轉)  
 널리다(넓히다, 廣)<sup>22)</sup>  
 말리다(말리다, 乾)

(16)은 ‘걸-리-, 싣-리-, 구르-리-, 너르-리-, 마르-리-’로 분석된다. ‘실리다’와 ‘걸리다’는 ‘싣-’과 ‘걸-’의 불규칙 활용형 ‘실-, 걸-’에 ‘-리-’가 결합된 것이다. ‘마르-’의 불규칙 활용형 ‘말-’에 ‘-리-’가 결합된 ‘말리다’는 ‘젖은 빨래를 좀 말려라’와 같이 사용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표준 한국어에서 동일한 형태인 사동사 ‘말리다’는 파생어기에 따라 방언형이

22) <경기 시흥·광주>, <충북 괴산>, <경남 김해·남해>,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부안·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정선·영암·광양·무안·함평·구례>, <제주 북제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말-’에 ‘-리-’가 결합된 ‘말리다’는 ‘싸움을 말리다’와 같이 사용되고 <경북, 경남, 전북, 전남>등에서는 ‘말리다’ 대신에 ‘말기다’가 더 많이 나타난다.

‘널리다’는 ‘너르-’에 ‘-리-’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인데 <전북, 전남>의 대부분 지역, <경기, 충북, 경남>의 일부 지역, <제주>의 북부에 분포된다.

한편, <전남, 경남, 제주>에서는 ‘-류/루-’ 형태도 발견된다. ‘-류-’는 ‘-리우-’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다. 정성경(2013)에서는 ‘-류-’를 ‘-리우-’의 축약형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얼리다’의 경우는 ‘얼리우다’의 형태가 나오고 ‘-리-’ 접미사의 ‘ㅣ’모음의 영향으로 ‘-우-’에 ‘ㅣ’모음 순행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얼류다’의 형태가 나오게 된 것이다. ‘-류(리우)-’가 통시적으로 ‘-리우-’에서 유추된 것으로 중세 한국어와 가까운 일면을 보인다. ‘-리우-’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 (17) (ㄱ) 널류다(넓히다, 廣)<sup>23)</sup>  
말류다(말리다, 乾)<sup>24)</sup>

- (ㄴ) 걸류다~걸루다(걸리다, 步)<sup>25)</sup>

- (ㄷ) 돌류다(돌리다, 廻)<sup>26)</sup>  
말류다(말리다, 禁)<sup>27)</sup>  
알류다~알루다(알리다, 知)<sup>28)</sup>  
얼류다~얼루다(얼리다, 凍)<sup>29)</sup>

(17)은 여기에 ‘-리우-’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들인데 ‘너르-리우-, 마르-리우-, 걷-리우-, 돌-리우-, 말-리우-, 알-리우-, 얼-리우-’

23) <경남 김해·남해>, <전남 정성>

24) <충북 보은>, <전남 담양>, <제주>

25) <제주>, <경남 울주·양산>

26) <경남 거제>

27) <강원 평창>

28) <경남 합천·함안>, <전남 여천>, <경북 영덕>

29) <전북 순창>, <전남 담양·화순·승주>, <제주 북제주>, <경북 영덕·영천·월성>

로 분석된다. ‘-류/루-’는 ‘-리우-’의 축약형으로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 ‘ㄷ’ 불규칙 용언 어기, ‘르’ 불규칙 용언 어기의 활용형 어기에 결합한다. 방언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 경남, 경북> 등에 가장 많이 분포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의 사동접미사 ‘-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 (18) (ㄱ) 늘리다(늘리다, 增)<sup>30)</sup>  
 말리다~몰리다(말리다2, 禁)<sup>31)</sup>  
 살리다(살리다, 生)<sup>32)</sup>  
 알리다(알리다, 知)<sup>33)</sup>  
 얼리다(얼리다, 凍)<sup>34)</sup>

- (ㄴ) 말리다(말리다1, 乾)<sup>35)</sup>

(18)은 ‘늘-리-’, 말~몰-리-, 살-리-, 알-리-, 얼-리-, 마르-리-’로 분석된다. ‘늘리다’는 ‘늘-’에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인데 ‘학생수를 늘리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말리다2’는 ‘말-’에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데 ‘싸움을 말리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30) <경기 화성·포천·파주>, <충북 청원·충주·보은>,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영광·영암·보성>, <경북 청송·고령·의성·청도>, <경남 창원·창녕·산청·남해>, <제주 서귀포>

31)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서산·예산>, <전북 무주·임실>, <경북 상주·의성>,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산청·울주>, <제주 서귀포 색달동·구좌>

32)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서귀포 색달동·구좌>

33) <경기 화성·포천·파주>, <충북 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청도>, <강원 원주·홍천·인제>,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서귀포 색달동·구좌>

34) <경기 화성·파주>, <충북 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군산·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고령>,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구좌>

35)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군산·임실·고창>, <전남 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의성·청도>, <강원 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산청>, <제주 서귀포 색달동·구좌>



‘살리다’는 ‘살-’에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는 동사 ‘살다’의 사동형으로 다음과 같이 ‘살이’와 ‘사르-’가 공존하였다. ‘살이’는 허용의 뜻을 가져 ‘~에 살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음에 비해 ‘사르-’는 ‘죽이다’의 반대 뜻인 단순한 타동사 ‘살리-’의 뜻으로 쓰였다(허용1975:171).

- (19)      吳人 周瑜 | 孫策을 집주어 살이고      《杜詩諺解甘4:27》  
              나랏 小民을 사르시리잇가      《용비어천가52》

‘얼리다, 알리다’는 ‘얼-, 알-’에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다. 《보고서》에 조사된 결과에 따라 ‘얼리다, 알리다’의 출현 지역은 《자료집》과 차이가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충북 청원>, <경북 봉화>, <경북 상주> 등의 지역에는 ‘알구다’가 분포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다’로 나타난다. <경기 양평·이천>, <강원 정선>, <충북 중원> 등의 지역에서는 《자료집》에 따르면 ‘알리다’가 사용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다시 ‘알구다’로 나타난다. 따라서 ‘알리다’는 전국적인 분포 범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얼리다’의 경우, 《자료집》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 《보고서》에서 나타난 지역이 더 많아졌다. (18ㄴ)은 ‘마르-리-’로 분석된다. ‘말리다1’는 ‘고추를 말리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한편, 《보고서》에서 ‘-류/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리-’와 음운론적 환경이 같다.

- (20)    (ㄱ)    살류다(살리다, 生)<sup>36)</sup>  
              (ㄴ)    늘류다~늘루다(늘리다, 增)<sup>37)</sup>  
                  알류다(알리다, 知)<sup>38)</sup>  
                  얼류다(얼리다, 凍)<sup>39)</sup>  
              (ㄷ)    말류다~말루다(말리다1, 乾)<sup>40)</sup>

36) <전남 곡성·보성>

(20)은 ‘살-리우-, 늘-리우-, 알-리우-, 얼-리우-, 마르~-리우-’로 분석된다. ‘-류/루-’의 출현 지역을 살펴보면 <전남, 제주>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 2.2.4. ‘-기-’, ‘-키-’

‘-기-’는 일반적으로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나 마찰음, 파열음 ‘ㅌ, ㄷ’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된다. 《자료집》에서 ‘-기-’와 결합한 사동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21) 감기다~강기다~강끼다~강키다(감기다, 洗)  
 굶기다~궁기다~강기다(굶기다, 飢)  
 숨기다~헛기다~심키다~숨키다~헛끼다(숨기다[숨기다], 隱)  
 싱기다~신기다~신끼다~싱끼다~신키다(싱기다, 履)  
 옮기다~옹기다~왕기다(옮기다[옹기다], 移)

(21)은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인데 ‘감~강-기-, 굶~궁~강-기-, 숨~숨~헛~심~-기~끼~키-, 싱~신~-기~끼~키-, 옮~옹~왕-기-’로 분석된다.

《자료집》에 수집된 사동사를 살펴보면 비음으로 끝나는 동일한 어기에 ‘-기~끼~키’의 교체가 확인된다. 일부 방언에서는 ‘-기-, -키-, -끼-’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다음 (22)와 같이 《자료집》에서 ‘신기다’의 방언형을 살펴보면 방언에서 비음 뒤 경음화가 적용된 ‘신끼-’가 나타나며, ‘신키-’도 나타난다.

37) <제주 한경·서귀포·서귀포 포선면 가시리>

38) <전남 곡성>

39) <제주 서귀포 색달동·구좌>

40) <전북 무주·남원>, <전남 곡성>, <경북 상주·청송·고령>, <강원 원주>, <경남 창원(구)·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서귀포 포선면 가시리>

(22)	방언형	분포지역
	신끼-	<경기 용진·시흥·화성·용인·남양주·양평>, <강원 화천·양구·인제·고성·춘성·홍천·양양·횡성·평창·명주·원성·영월·정선·삼척>, <충북 음성·증원·단양·보은>, <충남 서산·아산·홍성·공주·보령·대덕>, <경북 봉화·영양·예천>, <경남 거창·합천·함양·의령·하동>, <전남 진도>
	(신기다)	
	신끼-	<경기 파주·포천·고양·광주·이천·여주·평택·안성>, <충북 진천·청원>, <충남 청양·연기·부여·논산·금산·예산>, <경북 영풍·울진>, <경남 산청>, <전북 전역>,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함평·광산·신안·무안·나주·화순·승주·광양·영암·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여천·완도>
	(신기다)	

김소영(2014)에서는 방언에서 사동접사 ‘-기-’와 결합할 때 ‘신키다/신끼다(신기다)’<sup>41)</sup>처럼 경음과 격음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음과 격음의 교체 현상은 <전남> 방언에서의 ‘보듬키다(보듬끼다), 신키다(신끼다)’에서도 확인된다. 정성경(2003)에 따르면 <전남> 방언의 피·사동 파생어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어기에 ‘-기-’와 ‘-키-’가 혼용되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23)	(ㄱ)	보듬기다/보듬키다(안기다) 남기다/남키다(남기다) 냉기다/냉키다(냉기다) 신기다/신키다(신기다) 눌키다/눌기다(눌리다) 날키다/날기다(날리다)	정성경(2003)
	(ㄴ)	숨기다/숨키다(숨기다) 던키다/던기다(들리다)	<전남방언사전>

41) ‘안기다, 신기다, 감기다’ 등에서 피·사동 접미사는 경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성규(1987:15-16)에서 논의했듯이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가 발생하기 전에 피·사동 접미사 ‘-기-’가 생산성을 잃음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전남, 함북 등의 많은 방언에서는 ‘안끼다, 신끼다, 감끼다’와 같이 경음화가 적용된 예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파생접사의 생산성 및 비음 뒤에서의 경음화 발생 시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숨기다, 신기다’는 경음화가 적용된 어형들이 여러 방언에서 나타나지만, ‘옴기다’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 -키-, -끼-’가 혼용되어 쓰이는 것은 어휘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끼~키-’를 모두 ‘-기-’ 접미사로 분석한다.

‘숨기-~숨기-~쉴기-~심기-~’는 ‘숨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드러나지 않게 하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국 방언에서 ‘숨-, 숨-, 쉼-, 심-’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발견되는데 이들은 ‘숨-’에서 연구개음화나 움라우트 등의 음운현상을 겪어서 형성된 것이다.<sup>42)</sup> 《자료집》에서는 ‘심키다’가 <경남>의 일부 지역에만 나타난다.

- (24) (ㄱ) 말기다(말리다, 禁)<sup>43)</sup>  
(ㄴ) 알기다(알리다, 知)<sup>44)</sup>

(24)는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기-’가 결합한 것인데 ‘말-기-, 알-기-’로 분석된다. 대부분 방언에서 표준어와 같이 ‘ㄹ’말음 어기에 ‘-리-’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사동사가 쓰이고 있는 반면에 <경남>이나 <전남> 등에서는 ‘-기-’ 결합형이 사용된다. 특히 <경북 영천·영일·월성>, <경남 창녕>에서는 ‘말기다’와 ‘말리다’가 같이 쓰이고 있다. ‘알기다’는 몇몇 지역어에만 출현되고 ‘알-’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소개하여 알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 (25) 뱃기다~빋기다~뵈기다(벗기다, 脫)  
뜯기다~띠기다(뜯기다, 擽)

42) 양순임(2012)에 따르면 움라우트에서 ‘ㄱ’이 ‘ㄱ’로, ‘ㄷ’이 ‘ㄴ’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해당지역에서 ‘ㄱ’과 ‘ㄱ’이 단모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ㄷ’과 ‘ㄱ’의 혀높이에 해당하는 모음이 ‘ㄴ’, ‘ㄱ’이기 때문이다.

43) <전북 익산·김제·부안·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경북 고령·경산·달성·영천·영일·월성>, <충남 논산>, <강원 인제·고성·명주·양양>, <경남 함천·밀양·함양·산청·의령·하동·진양·합안> 의창·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창녕>

44) <강원 양구>, <경북 월성>, <경남 거제>

말기다~맬기다(말기다, 任)

(25)는 파열음, 마찰음으로 끝난 동사 어기에 ‘-기-’가 결합된 것으로 ‘벧~빋~빋~뵈-기-, 뜯~뵈-기-, 말~맬-기-’로 분석된다. ‘벧기-, 빋기-’는 ‘벗기다’의 음라우트형이다. 《자료집》에서 ‘벗기다’의 방언형은 모두 음라우트를 겪은 형태로 나타나고 <강원, 충북, 경북,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벧기다’ 대신에 ‘빋기다’로 나타난다. ‘ㄴ>ㄹ’의 변화과정은 최명옥(198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에’와 ‘애’가 음소로서 변별되던 시기에 음라우트가 일어난 뒤, ‘에>이’의 통시적 변화를 겪어 ‘-이-’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기다~맬기다’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방언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말기다’에 대해 김완진(1973)에서는 ‘맏이다>맛지다>말기다’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와 결합하여 ‘맏이다’가 되는데 구개음화를 겪어서 ‘맛지다’로 변화하게 된다. 그 후에 ‘맏다’가 ‘말다’로 변했으므로 ‘맛지다’도 ‘말이다’로 변할 것이 기대되지만 그렇게 하여 ‘말이다’가 생기면 이것은 ‘맞히다’와 동음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가 선택된다.

(26)                    걸기다~걸기다~끓기다~끓기다(걸리다, 步)  
                             실기다~실기다~싫기다(실리다, 載)

(26)은 ‘ㄷ’불규칙용언 활용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고 ‘걸~걸~끓~끓-기-, 싣~싫~실-기-’로 분석된다. ‘걸기다’는 ‘건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대부분 방언에서 ‘걸리다, 걸루다’로 나타나지만 <경북>에서는 다음(27)과 같이 ‘걸기다, 걸기다, 끓기다, 끓기다’ 등 다양한 방언형으로 실현된다. <경북> 방언에서 ‘-리-, -기-, -키-’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동파생어기의 기저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세환(2014)에 따르면 <경북> 방언의 ‘ㄷ’불규칙 용언 어기의 기저형은 ‘x<sub>25</sub>-’또는 ‘x<sub>25</sub>-/x<sub>25</sub>-’으로 볼 수 있다.

(27) 방언형

분포지역

걸리다(걸-)	<경북 봉화·금릉·선산·군위·영일·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
끓기다(걸-)	<경북 영풍·울진·예천·안동·영양·상주·청송·서산>
끓기다(걸-)	<경북 봉화>
걷기다(걸-)	<경북 의성·월성·영덕>

한편, 《보고서》에서 ‘-기-’는 비음, 마찰음,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기-’ 대신에 ‘-끼-, -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28) 궁기다~강기다~굶기다(飢)45)  
숨기다~송기다~송키다~싱키다~씽키다(숨기다, 隱)46)  
신기다~싱기다~싱끼다~싱키다(신기다, 履)47)

(28)은 ‘궁~강~굶-기-, 숨~송~씽~싱-기~키-, 신~싱-기~끼~키-’로 분석된다. ‘싱기다’는 ‘신-’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연구개음화 된 것이다. ‘씽기~싱기-’는 ‘숨-’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가 연구개음화와 음라우트 등 음운현상을 겪어서 형성된 것인데 지역에 따라 음라우트의 동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거의 모든 방언에서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통합되지만 <제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특한 어형이 쓰이고 있다.

45)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서귀포 호근동>

46)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

47)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 (29) 굼기다: 밥을 굼찌라      《보고서》: <제주 서귀포 가시리>  
 숨기다: 저 시계 곶찌라      《보고서》: <제주 서귀포 가시리>  
 신기다: 자의 신 신찌라      《보고서》: <제주 서귀포 가시리>

다음 (30ㄱ)은 ‘ㅅ’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들인데 ‘벗~벧~빋~기-, 웃~잇~기-’로 분석된다. ‘벧기~빋기-’는 ‘벗-’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움라우트형이다. ‘웃기다’는 ‘웃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지역에 따라 움라우트를 적용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 (30) (ㄱ) 벗기다~벧기다~빋기다(벗기다, 脫)<sup>48)</sup>  
 웃기다~잇기다~윗기다(웃기다, 笑)<sup>49)</sup>
- (ㄴ) 늘기다(늘리다, 增)<sup>50)</sup>  
 말기다(말리다<sup>2</sup>, 禁)<sup>51)</sup>  
 알기다~알키다(알리다, 知)<sup>52)</sup>

(30ㄴ)은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들인데 ‘늘-기-, 말-기-, 알-기~키-’로 분석된다. ‘말기다’는 ‘말-’에 사동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고 ‘싸움을 말리다’와 같이 쓰인다. 《자료집》에 비해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더 많은 방언에서 ‘말리다’와 ‘말기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는 ‘말기다’가 구형으로 ‘말리다’

48)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서귀포 포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49)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전·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진도·영광·영암·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 <제주 서귀포 호근동·구좌>

50) <경북 상주>, <강원 원주>, <강원 홍천>

51) <전남 곡성·진도·영광·고성·광양·신안>, <전북 완주·남원·군산·임실·고창>, <경북 고령·청도·경주>, <경남 창원·창녕·산청·울주·남해·고성·하동> <충남 논산·서천>

52) <충남 논산>, <강원 홍천>, <경북 의성·경주>

가 신형으로 공존한다. 《자료집》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말리다’가 더 많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조사된 모든 <전남> 지역에서 ‘말기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직 고어형이 보존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료집》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강원>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 ‘말기다’가 나타나지만 《보고서》에서 조사된 강원도의 하위 지역에서는 ‘말기다’가 발견되지 않는다.

(31) ‘말리다’와 ‘말기다’가 공존되는 지역 :

<충남 논산>, <경남 창원·산청·울산>, <경북 경주>, <전북 임실·남원>

‘알기다’는 ‘알-’에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고 《보고서》의 조사 지역 중에 <충남 논산>, <강원 홍천>, <경북 의성>에서만 발견된다. 《자료집》에서 ‘알기다’의 분포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키-’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자료집》에서 ‘-키-’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 (32) (ㄱ) 놀래키다(놀래다, 驚<sup>53</sup>)  
 (ㄴ) 뛰키다(뛰게 하다)<sup>54</sup>  
 (ㄷ) 앉히키다(앉히다, 坐)  
 (ㄹ) 걸리키다(걸리다, 走)<sup>55</sup>

(32ㄱ)은 ‘놀래-키-’로 분석된다. 표면적인 형태만으로 보면 ‘놀래키다(놀라-)’는 파생어기에 중첩접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놀라+이키’로 분석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료집》에서의 ‘놀라다’의 방언형을 보면 일부 방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방언에서 ‘놀래다’로 나타난다.

‘놀라다’의 사동형의 방언 분포를 보면 남부 방언에서는 주로 ‘놀래주다/놀

53) <강원 원성·홍천·삼척·인제·양구·화천>, <경기 양평·이천·여주·안성>, <충북 영동·옥천·보은·청원·괴산·음성·증원·제원·단양>, <경남 남해·하동·산청>

54) <경기 남양주>

55) <강원 명주·영월·정선>



래게 하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강원, 경기, 충북, 경남>의 일부 방언에서는 주로 '놀래-'에 '-키-'가 결합하여 형성된 '놀래키다'가 나타난다.

(32ㄴ)은 '뛰-키-'로 분석되는데 표준 한국어에서 장형사동 '뛰게 하다'로 실현된다. 그런데 <경기 남양주>에서는 파생어기 '뛰-'에 사동접미사 '-키-'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2ㄷ)은 '앉-'에 '-히-'가 결합하여 형성된 '앉히-'에 다시 '-키-'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것이다. (32ㄹ)은 '걷-'의 활용형 어기에 '-리-'가 결합한 후에 다시 '-키-'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33)은 <<보고서>>에서의 사동접미사 '-키-'의 결합 양상이다.

- (33) (ㄱ) 보키다(보이다, 見)<sup>56)</sup>
- (ㄴ) 앉히키다(앉히다, 坐)<sup>57)</sup>
- (ㄷ) 뵈키다(보이다, 見)<sup>58)</sup>

(33ㄱ)은 '보-키-'로 분석된다. '보키다'는 '보-'에 사동접미사 '-키-'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사동사이다. 조사된 지역 중에는 '보키다' 어형만 발견된다. (33ㄴ)은 '앉히-키-', (33ㄷ)은 '뵈-키-'로 분석된다. '-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형성한다.

## 2.2.5. '-지-'

'-지-'는 <제주>의 사동사에서 확인되고 다른 방언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지-'는 일반적으로 '-기-' 대신에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나 '-히-' 대신에 파찰음이나 파열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데 양상은 다음과 같

56) <강원 정선>

57) <강원 원주>

58) <경기 양평>

다.

- (34) (ㄱ) 곱지다(숨기다, 隱)<sup>59)</sup>  
눅지다(눅히다, 臥)<sup>60)</sup>  
앗지다(앉히다, 坐)<sup>61)</sup>

- (ㄴ) 굶지다(굶기다, 飢)<sup>62)</sup>  
뜯지다(뜯기다, 擽)<sup>63)</sup>

(34)는 ‘곱-지-, 눅-지-, 앓-지-, 굶-지-, 뜯-지-’로 분석된다. (34ㄱ)은 파열음이나 파찰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표준어에서는 ‘-히-’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반면에 <제주>에서는 ‘-지-’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형성한다. (34ㄴ)은 표준어에서는 ‘-기-’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데 <제주>에서는 ‘-지-’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하지만 사동사 ‘-리-’, ‘-이-’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35)는 <<보고서>>에서 ‘-지-’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들이다.

- (35) (ㄱ) 앓지라~앉지라(앉히다, 坐)<sup>64)</sup>  
입지라(입히다, 穿)<sup>65)</sup>

- (ㄴ) 굶지라(굶기다, 飢)<sup>66)</sup>  
신지라(신기다, 履)<sup>67)</sup>  
웃지라(웃기다, 笑)<sup>68)</sup>

(35)는 ‘앓~앓-지-, 입-지-, 굶-지-, 신-지-, 웃-지-’로 분석된다. <<보고서>>에서도 ‘-지-’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는 <제주>에서만 발견된

---

59) <제주> 전역

60) <제주> 전역

61) <제주> 전역

62) <제주> 전역

63) <제주> 전역

64)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65)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66) <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67) <제주 한경·서귀포 색달동·구좌>

68) <제주 한경·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다. 《자료집》과 같이 ‘-이-, -리-’ 대신에 여기에 결합하지 않고 ‘-히-’ 대신에 평음인 ‘ㅈ’, ‘ㅊ’말음 여기에 결합하거나 ‘-기-’ 대신에 마찰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여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지-’는 <제주> 방언에서 생산성이 높은 사동접미사라고 할 수 있다.

## 2.2.6. ‘-우-’

‘-우-’계 사동접미사에는 ‘-우-, -구-, -쿠-, -후-, -추-’ 등이 있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 여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여기에 결합하여 파생시키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여기에도 결합된다.

- (36) (ㄱ) 얼우다(얼리다, 凍)<sup>69)</sup>  
 (ㄴ) 메우다(메우다, 填)  
 (ㄷ) 튀우다(튀기다, 彈)<sup>70)</sup>

(36ㄱ)은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 여기에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고 ‘얼-우-’로 분석된다. ‘얼-’에 표준 한국어에서는 ‘-리-’가 결합하여 ‘얼리다’를 파생되는데 <경북, 경남, 전남>의 하위 방언에서는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얼우다’가 나타난다.<sup>71)</sup>

(36ㄴ, ㄷ)은 모음으로 끝나는 여기에 ‘-우-’가 결합한 것인데 ‘메~미~우-, 튀~우-’로 분석된다. ‘메우다~미우다’는 ‘구덩이를 메우다’와 같이 사용되고 있고 중세 한국어에서도 ‘메우/메오’로 쓰였다. <충북, 충남, 전남, 경

69) <경북 군위·칠곡·경산·고령·청도>, <경남 울주·양산·김해·합천·의령·함안·산청·진양·거제·고성·사천·하동·구례·광양·남해>, <전남 보성·곡성·여천·고흥·장흥·영암>

70) <충북 보은>, <경북 예천·안동·금릉·영임·경산·영천·고령·청도>, <경남 창녕·산청·의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사천·고성·통영>

71) <경남 창녕·밀양·의창·통영>에서는 ‘얼아-’로 나타난다. ‘얼아-’는 ‘얼우-+-아-’ > 얼와-’가 활음 탈락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경남> 방언에서는 ‘씩하-’:<경남 창녕·통영>, ‘앉하-’:<경남 창녕>, ‘눅하-’:<경남 창녕>, ‘말라-’:<경남 창녕>가 많이 발견된다.

북>등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는 고모음화를 겪어 ‘메우- >미우-’로 변화하였다. ‘튀기다’는 ‘튀다’의 사동사이다. 일부 방언에서는 ‘튀기다’ 대신에 ‘튀-’에 사동접미사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출현되는데 특히 <경남> 방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의 사동접미사 ‘-우-’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 (37) (ㄱ) 깨우다(깨우다, 覺)<sup>72)</sup>  
 (ㄴ) 돋우다(돋우다, 昇)<sup>73)</sup>  
 (ㄷ) 얼우다(얼리다, 凍)<sup>74)</sup>

(37)은 ‘깨-우-’, ‘돋-우-’, ‘얼-우-’로 분석된다. ‘돋우다’는 ‘돋-’에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제주>에서 다음과 같이 ‘올리다’로 사용하고 있다.

- (38) 씹지를 좀 올리라      《보고서》: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얼우다’는 ‘얼-’에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자료집》에서는 ‘얼우다’가 <경남, 경북, 전남>의 많은 하위 방언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에는 아직 ‘얼우다’가 분포되지만 <전남>방언에서는 ‘얼우다’보다 ‘얼리다’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얼-’에 ‘-우-’ 결합형의 중심지는 <경남>일 가능성이 높다.

## 2.2.7. ‘-구-, -쿠-’

중부 방언에서 ‘-구-’는 주로 자동사 어기 및 동작성 어기와 결합하여 타동사를 만드는데 그 타동사는 [+유정성]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

72) <경기 화성·포천·파주·이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대천·논산·서천·서산·예산>,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고창>, <전남 곡성·보성>,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 <경남 창원>. <제주 한경·서귀포 호근동·서귀포표선면 가시리·서귀포 색달동·구좌>

73) <경기 이천>, <충남 서천·서산>, <전북 남원·고창>, <전남 진도·영암>, <경북 상주·청송·고령·의성·청도>, <강원 원주>, <경남 남해>

74) <경북 경주·청도>, <경남 하동·고성·창원·창녕·산청·남해·울산>, <전남 광양>

동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심재기 1987). 전국 방언의 사동사를 살펴보면 ‘-구-, -쿠-’가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데 몇몇 지역어에서는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구-, -쿠-’가 결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방언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구~쿠-’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자료집》에서의 사동접미사 ‘-구-’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는 다음과 같다.

- (39) (ㄱ) 알구다(알리다, 知)<sup>75)</sup>  
 열구다(열리다, 凍)<sup>76)</sup>
- (ㄴ) 널구다~널쿠다(넓히다, 廣)<sup>77)</sup>
- (ㄷ) 굶구다~굶쿠다(굶기다, 飢)<sup>78)</sup>  
 숨구다~숨쿠다(숨기다, 隱)<sup>79)</sup>

‘-구-’는 형용사나 동사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39ㄱ)는 ‘알-구-, 열-구-’로 분석되는데 유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이다. ‘알구다’는 ‘알-’에 ‘-구-’가 결합되어 ‘알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많은 방언에 나타난다. ‘열구다’는 ‘열-’에 ‘-구-’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것인데 ‘열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표준 한국어의 ‘열리다’ 대신에, ‘열구다’가 <제주,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알구다’와 ‘열구다’의 출현 지역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39ㄴ)은 형용사 어기에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데 ‘너르-구~쿠-’로 분석된

75) <강원 인제·양양·평창·명주·삼척>, <충북 음성·청원·괴산·보은>, <충남 연기>, <경북 영풍·울진·예천·상주·의성·영일·경산·영천>

76) <경기 연천·포천·양주·남양주·가평·용인·이천·여주>, <강원 철원·고성·춘성·홍천·양양·횡성·평창·명주·원성·영월·정선·삼척>, <충북>, <충남 공주·연기·논산·대덕·금산>,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영양·상주·의성·선산·영일·경산·청송·금릉·성주·달성>, <경남 거창·함양>,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임실·장수·남원>

77) <경기 이천>, <충북 제원·영동·옥천>, <강원 인제·원성·정선·철원·화천·평창>, <경북 울진>, <경남 산청·진양·양산·사천·거제>, <전북 장수>

78) <경남 합천·양산>

79) <경북 의성·상주·영일·경산·영천·고령·청도>, <경남 밀양·사천·양산>

다. ‘널구다’는 ‘너르다’의 불규칙 활용형인 ‘널-’에 ‘-구-’가 결합하여 ‘넓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동사이다. 곽충구(2004)에 따르면 함북 방언의 ‘알쿠다, 널कु다’의 ‘-쿠-’는 일종의 강음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널구다~널कु다’가 주로 <충북, 강원, 경남>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 나타난다.

(39ㄷ)은 비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구-’가 결합한 것인데 ‘송-구~쿠-, 굶-구~쿠-’로 분석된다. ‘송구다’는 ‘숨-’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며 <경상>의 일부 지역에만 분포된다. 다음과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 특수어기 교체를 보이는 예들이 있는데 ‘넙-, 줌-, 둥-’에 ‘-우-’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 (40) (ㄱ) 너므~넙- > 녕구-(넙기-)  
           다믄-~뚬- > 당구-(담그-)  
       (ㄴ) 즈믄~죸- > 장구-(잠그-)  
       (ㄷ) 시므~쑤- > 심구-/싱구-/송구-(심-)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동일한 어기에 ‘-구-’대신에 ‘-쿠-’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즉 규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방언에서는 ‘-쿠-’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 (41) 놀래쿠다(놀래다, 驚)<sup>80)</sup>

(41)은 ‘놀래-쿠-’로 분석되는데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사동접미사 ‘-쿠-’가 직접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놀래쿠다’는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강원>의 개별 하위 방언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의 ‘-구~쿠-’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 (42) 늘구다(늘리다, 增)<sup>81)</sup>  
       살구다(살리다, 生)<sup>82)</sup>

80) <강원 명주·평창·정선·영월>

알구다(알리다, 知)<sup>83)</sup>  
얼구다~얼쿠다(얼리다, 凍)<sup>84)</sup>

(42)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사동접미사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이다. (42)는 ‘늘-구-, 살-구-, 알-구-, 얼-구~쿠-’로 분석된다. ‘살구다’는 ‘살-’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인 데 <경기, 강원>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 나타난다. ‘알구다’는 ‘알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충북, 강원, 경기>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특히 <강원 원주>에서는 ‘알구다’와 ‘알리다’가 모두 사용되고 있지만 ‘알구다’가 더 많이 쓰인다. 《자료집》에서는 <경북>의 많은 하위 방언에 ‘알구다’가 나타났지만 《보고서》에서 조사된 <경북> 지역에서는 ‘알구다’가 발견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늘구다’는 ‘늘-’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인 데 분포 지역은 ‘알구다, 살구다’와 크게 차이가 없다. ‘얼구다’는 ‘얼-’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쓰인다.

(43) 냉동시래 너:서 얼궔따 《보고서》: <전북 무주>

‘얼구다’는 ‘늘구다, 살구다, 알구다’ 등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출현한다. <충북 옥천·보은>, <강원 삼척>에서는 ‘얼구다’와 ‘얼리다’가 모두 쓰이고 있다. 특히 <강원 삼척>에서 ‘얼구다’는 구형으로 ‘얼리다’는 신형으로 쓰인다. 한편, <경북 경주>에서는 ‘얼우다’와 ‘얼구다’가 같이 쓰인다. 《자료집》에 따르면 <충북> 전역에서 ‘얼구다’가 출현하지만 《보고서》의 <충북>방언에서는 ‘얼구다’ 대신에 ‘얼리다’가 더 많이 나타난다.

81) <충북 제천·옥천>, <경기 포천·이천·양평>, <전북 남원>, <강원 양양·홍천·인제·평창>

82) <경기 포천·이천>, <강원 홍천>

83) <충북 제천·이천>, <강원 양양·삼척·원주·평창·정선>, <경기 양평·이천>

84) <경기 포천·이천·양평>, <충북 제천·보은·옥천>, <충남 대전·공주·천안>, <전북 무주·남원·임실>, <전남 곡성>, <경북 상주·청송·의성·경주·봉화>, <강원 삼척·원주·양양·홍천·인제·평창·정선>

- (44) (ㄱ) 돌구다(돌우다, 昇)<sup>85)</sup>  
 (ㄴ) 송구다~송구다(숨기다, 隱)<sup>86)</sup>

(44ㄱ)은 ‘돌-구-’로 분석되고 (44ㄴ)은 ‘송-구~쿠-’로 분석된다. 《보고서》에서도 비읍으로 끝나는 어기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어형은 <경상>에서만 발견된다. 《자료집》에 비해서 <경북>과 <경남>의 일부 지역에 ‘송구-~송쿠-’대신에 ‘숨기다’가 사용된다. 특히 <경남 고성>에서 ‘송-’에 ‘-기-’와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를 모두 쓰이고 있다.

## 2.2.8. ‘-후-’, ‘-추-’

기주연(2014)에 따르면 ‘-후/호-’는 ‘긷+-호(マ초), 맞+-호(마초), \*땃+-후(머추), \*긷+-호(고초)’와 같이 보통 ‘ㅈ’말음 어기에 쓰이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추-’로 통일되었다. 《자료집》에서는 전국 방언에서 ‘ㅈ’말음 어기뿐만 아니라 ‘ㄱ’말음 어기, ‘ㄴ’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도 출현된다.

《자료집》에서의 사동접미사 ‘-후-’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5) (ㄱ) 녹후다(녹이다, 凍)<sup>87)</sup>  
 삭후다(삭이다, 消)<sup>88)</sup>  
 속후다(속이다, 欺)<sup>89)</sup>  
 식후다(식히다, 冷)<sup>90)</sup>  
 썩후다~썩후다(썩히다, 腐)<sup>91)</sup>
- (ㄴ) 낮후다(낮추다, 低)  
 맞추다(맞추다, 合)  
 앉후다(앉히다, 坐)<sup>92)</sup>

85) <경기 화성·포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예산>, <전북 무주·임실>, <전남 곡성·보성>, <강원 양양·홍천·인제·평창>

86) <경북 청도·경주>, <경남 고성>



(ㄷ) 넓후다(넓히다, 廣)<sup>93)</sup>

(45ㄱ)은 ‘ㄱ’ 말음으로 끝나는 동사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인데 ‘눅-후-, 삭-후-, 속-후-, 식-후-, 썩~썩-후-’로 분석된다. ‘썩후다’는 ‘썩후다’의 음라우트형이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히-’가 결합되는 반면 《자료집》에 따르면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썩후다’는 <경기, 강원,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눅-, 삭-, 속-’에 표준 한국어에서는 ‘-이-’와 결합하는 반면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후-’가 결합한다. ‘식후다’는 ‘식-’에 ‘-후-’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이다. ‘ㄱ’ 말음 어기에 ‘-후-’ 결합형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지만 어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속후다’는 ‘눅후다, 삭후다, 식후다, 썩후다’에 비해서 출현 지역이 제한적이고 <경북>의 몇몇 하위 방언에만 발견된다.

(45ㄴ)은 ‘낫-후-, 앓-후-, 맞-후-’로 분석되는데 평파찰음으로 끝나는

- 
- 87) <충북 영동>, <경북 예천·문경·안동·청송·선산·금릉·군위·영일·성주·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 <경남 거창·합천·창녕·울주·함양·산청·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사천·남해·통영·거제>, <전북 무주·순창>, <전남 곡성·여천>
- 88) <충북 옥천·영동>, <충남 논산·금산>, <경북 영임·경산·상주>, <경남 거창·합천·창녕·밀양·울주·함양·산청·의령·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전북 완주·진안·무주·김제·부안·정읍·임실·장수·고창·순창>, <전남 영광·장성·곡성·광산·신안·무안·나주·승주·영암·진도·강진·고흥·여천·완도>
- 89) <경북 합천·밀양·사천·고성>
- 90) <충북 음성·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연기·논산·금산·공주>, <경북 문경·의성·청송·금릉·선산·군위·영일·성주·영천·예천·상주·칠곡·경산·고령·달성·청도·월성>, <경남 거창·합천·울주·함양·산청·의령·하동·진양·함안·창녕·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거제>,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김제·부안·정읍·임실·장수·고창·순창·남원>, <전남> 전역
- 91)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논산·대덕·금산·연기·공주·청송>, <경북 영풍·문경·예천·안동·영일·칠곡·경산·영천·고령·달성·월성·봉화·영양·상주·의성·금릉·선산·군위·영일·성주>, <경남 거창·합천·밀양·울주·함양·산청·의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거제>, <전북 완주·진안·무주·김제·부안·정읍·임실·장수·고창·순창·남원>,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함평·광산·신안·무안·화순·광양·영암·진도·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여천·완도>
- 92) <충북 단양·괴산>, <강원 삼척·정선·명주·영월·평창·인제>, <경북 청송·달성·울진·영천>, <경남 합천·밀양·울주·함안·의창·김해·양산>
- 93) <경남 합천>

여기에 접미사 ‘-후-’가 결합한 것이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앉-’에 ‘-히-’가 결합되는 반면 일부 방언에서는 ‘-후-’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앉후다’는 특히 <강원, 경북, 경남>의 하위 방언에 많이 출현되고 ‘자리에 앉히다’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밥을 앉히다’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전국적으로 ‘-히-’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만 분포된다.

(45ㄷ)은 비음으로 끝나는 여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고 ‘넙-후-’로 분석되는데 <경남 합천>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 ‘-후-’ 접미사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를 살펴본다.

- (46)            녹후다(녹이다, 融)<sup>94)</sup>  
                   썩후다(썩히다, 腐)<sup>95)</sup>  
                   앉후다(앉히다, 坐)<sup>96)</sup>

(46)은 ‘썩-후-’, ‘녹-후-’, ‘앉-후-’로 분석된다. ‘썩후다’는 ‘썩-’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이고 (47)과 같이 쓰인다. ‘썩후다’는 <경기, 제주,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식후다’는 ‘식-’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앉-’에 표준 한국어에서는 ‘-히-’가 결합하는데 <경북, 경남, 강원>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는 ‘-후-’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하지만 <경남 창원>에서는 구형 ‘앉후다’를 대신에 신형 ‘앉히다’도 같이 쓰이고 있어서 ‘앉후다’의 분포 지역이 줄어들고 있다.

- (47)            감자를 썩룬다    《보고서》: <전북 완주>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후-’는 평파열음 ‘ㄱ’이나 평파찰음 ‘ㄷ’으로 끝나는 여기에 결합하여 형성된다. 하지만 《보고서》와 《자료집》의 ‘녹후다,

94)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전남 곡성>, <경북 상주·의성>, <강원 원주>

95) <충북 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공주·대진·논산·천안>, <전북 무주·남원·군산·임실·완주>, <전남 곡성·진도·영암·보성·광양>, <경북 상주·청도·경주>, <경남 산청·고성·하동>, <강원 원주>

96) <경남 창원·하동>, <경기 이천>, <경북 청도·경주>, <강원 평창·삼척·정선>

씩후다, 안후다’의 출현 지역은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후-’ 결합형과 ‘-히-’ 결합형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변화가 많이 확인된다.

‘-추-’는 전국 방언에서 ‘늦추다, 맞추다’로 나타나는데 ‘ㅈ’ 말음어기에 ‘-후-’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자료집》에서는 <전남 승주>에서 ‘너르-’의 활용형 어기 ‘널-’에 ‘-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나타난다.

(48)                      널추다(넓히다, 廣)<sup>97)</sup>

‘널추다’는 ‘너르-추-’로 분석된다. ‘너르-’의 불규칙 활용형인 ‘널-’에 ‘-추-’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된다. 《자료집》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추-’가 결합한 사동사가 ‘널추다’만 발견되지만 정성경(2013)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에 속하는 <여수, 순창, 광양> 등에서 말음이 모음이나 ‘ㄹ’인 경우에 ‘-추-’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 예들이 확인된다.

(49)    정성경(2013)    |    머물추-(머물게 하-), 타추/테추-(불에 태우-), 빠추  
                                 |    -(빠뜨리-), 퍼추-(퍼뜨리-)

## 2.2.9. ‘-애-’

‘-애-’는 한국어에서 어기 ‘없-’에만 결합되는 사동파생접미사이다. 다음과 같이 《자료집》에서 ‘없애다’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방언의 하위 방언에서는 ‘없애다’ 대신에 ‘없이다’가 출현한다.

(50)                      없애다~없이다(없애다, 無)

## 2.2.10. 소결

---

97) <전남 승주>

지금까지 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들을 접미사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자료의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살펴보았다.

《자료집》과 《보고서》를 분류하여 각 지역어의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6], [표7]과 같다.

[표6] 《자료집》에서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

	표준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이	속이- (欺)	속이- 속히-	속이-	속이-	속이- 속히-	속이-	속이- 속히- 속후-	속이-	속이- 속히-	속이-
	삭이- (消)	삭이- 삭히-	삭이- 삭히-	삭이- 삭후-	삭이- 삭히- 삭후-	삭이- 삭히- 삭후-	삭이- 삭히- 삭후-	삭이- 삭히- 삭후-	삭이- 삭히- 삭후-	삭히-
	녹이- (融)	녹이- 녹히-	녹이-	녹이- 녹히- 녹후-	녹이- 녹히-	녹이- 녹히- 녹후-	녹히- 녹후-	녹이- 녹히- 녹후-	녹이- 녹히- 녹후-	녹이-
	먹이- (食)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먹이-
	높이- (高)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높이-
	닦이- (擦)	닦이-	-	닦이-	닦이-	닦이-	닦이-	닦이-	닦이-	닦게하-
	끓이- (沸)	끓이-	끓이-	끓이-	끓이-	끓이-	끓이-	끓이-	끓이- 끓리-	끓리-
	놀래- (驚)	놀래- 놀래키- 놀래게 하-	놀래-, 놀래키-, 놀래꾸-	놀래주-, 놀래키-	놀래- 놀래키-	놀래-	놀래- 놀래키- 놀래게 하-	놀래- 놀래게 하-	놀래- 놀래게 하-	놀래게 하-
	눕이- (臥)	누이- 눕히- 누키-	누키- 넙히-	누이- 누이- 누키- 넙히-	누이- 누키-	누이- 넙히-	넙히-	누이- 넙히-	누이- 넙이- 넙히-	넙지- 넙히-
	들이- (入)	들이-	들이-	들이-	들이-	들이- 들리-	들이-	들이-	들이-	들이-
이 우	띄우- (浮)	띄우- 뜨이-	띄우-	띄우- 뜨이-	띄우-	띄우-	띄우-	띄우- 뜨이-	띄우- 뜨이-	띄우-

	썩 우 - (使書)	썩우- 쓰 게 하- -	쓰이키- -	쓰 이 키 -	쓰 게 하-	시키라 시에라 <sup>98)</sup>	씨이라 씨아라 <sup>99)</sup>	씨여다 쓰 게 하-	씨워라	씨와라
	재우- (眠)	재우- 재-	재우-	재우- 재쿠- 재키-	재우- 재-	재리- 재이-	재우- 재이- 재-	재우- 재이- 재-	재우- 재이- 재-	재우-
히	넓히- (廣)	넓히- 널리- 넌쿠- 넌히-	넓히- 넌구- 넌쿠-	넓히- 넌리- 넌구-	넓히-	넓히- 넌구- 넌히-	넓히- 넌후- 넌쿠- 넌리- 넌기-	넓히- 넌리- 넌쿠- 넌히-	넓히- 넌리- 넌류- 넌쿠- 넌추-	넓히- 넌리-
	잡히- (捕)	잡히-	잡히-	잡히-	잡히-	잡히-	잡히-	잡히-	잡히-	잡히-
	식히- (冷)	식히-	식히- 식이-	식히- 식후-	식히- 식후-	식히- 식이- 식후-	식후-	식히- 식후-	식후-	식이-
	썩히- (腐)	썩히- 썩이-	썩히- 썩이-	썩히- 썩이- 썩후-	썩히- 썩이- 썩후-	썩히- 썩이- 썩후-	썩후-	썩히- 썩후-	썩후-	썩이-
	목히- (置)	목히- 목이-	목이- 목히-	목히-	목히- 목이- 목후-	목히- 목후-	목히- 목후-	목히- 목후-	목히- 목후- 목이-	목히-
	밝히- (明)	밝히- 밝게하-	밝히- 밝게하-	밝히-	밝히- 밝이-	밝히-	밝히- 밝게하-	밝히-	밝히- 밝게하-	밝게하- 원 히 게 하-
	읽히- (讀)	읽히-	읽히- 익히-	읽히-	읽히-	읽히- 일리- 읽이-	읽히- 일리-	읽히-	읽히- 익이-	익게하-
	묻히- (埋)	묻히-	묻히-	묻히-	묻히-	묻히-	묻히-	묻히-	묻히-	묻히-
	앉히- (坐)	앉히-	앉히- 앉후- 앉후구- 앉후키-	앉히- 앉후-	앉히-	앉히- 앉후-	앉히- 앉후-	앉히-	앉히-	앉지-
	앉히- (밥)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히-	앉지-
기	굽히- (曲)	굽히-	굽히-	굽히-	굽히-	굽히-	굽히- 구 부 리 -	굽히-	굽히- 꾸부리-	굽히-
	신기- (履)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신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脫)									
	맡기- (任)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맡기-
	뜯기- (搏)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기-	뜯지-
	감기- (洗)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감기-	-
	굶기- (飢)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구-	굶기-	굶기-	굶지-
	숨기- (隱)	숨기-	숨기- 숨키-	숨기-	숨기-	숨기- 숨쿠- 숨구-	숨기- 숨키- 숨쿠- 숨구-	숨기- 숨키-	숨기- 숨키-	굽지-
	옮기- (移)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옮기-
리	빨리- (吮)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게하-
	알리- (知)	알리-	알리- 알구- 알기-	알리- 알구- 알쿠-	알리- 알구-	알리- 알구- 알기- 알루-	알리- 알류- 알기-	알리-	알리- 알류-	알리-
	얼리- (凍)	얼리- 얼구-	얼구- 얼귀- 얼리-	얼구-	얼리- 얼구-	얼구- 얼우-	얼우- 얼구-	얼리- 얼류- 얼구-	얼리- 얼류- 얼우-	얼리- 얼류-
	말리- (禁)	말리-	말리- 말기- 말류-	말리-	말리- 말기-	말리- 말기-	말리- 말기-	말리- 말기-	말기-	말리- 멀리-
	걸리- (步)	걸리-	걸리- 걸라키-	걸리- 걸라키-	걸리-	걸리- 걸기- 걸기-	걸리- 걸기- 걸루- 걸류-	걸리- 걸귀-	걸리-	걸류-
	돌리- (廻)	돌리-	돌리-	돌리-	돌리-	돌리-	돌리- 돌류-	돌리-	돌리- 돌게하-	돌리-
	굴리- (轉)	굴리-	굴리- 돌리-	굴리- 돌리-	굴리- 돌리-	굴리- 구불이- 구불리-	돌리- 구불이-	굴리- 돌리-	굴리- 굴이-	굴리- 돌리-
	말리다 (乾)	말리-	말리- 말류-	말리- 말류-	말리-	말리-	말리-	말리-	말리- 말류-	말류-
	실리- (載)	실리- 실게하-	실리- 실게하-	실리-	실리- 실게하-	실리- 싫기- 신기- 실기-	실리-	실리- 실게하-	실리-	실게하-

						실이-				
우	메우- (塿)	메우- 메꾸-	메우- 메꾸- 메꾸-	메우- 메꾸-	메우- 메- 메꾸-	메우- 메이- 메이-	메우- 메이- 메꾸-	메우- 메꾸- 메꾸-	메우- 메꾸-	메우-
후	맞후- (合)	맞후- 맞히-	맞후- 맞히-	맞후- 맞히-	맞후-	맞후- 맞히-	맞후- 맞히-	맞후-	맞후-	맞후-
	낮후- (低)	낮후- 작게하- 얕추-	낮후- 얕이-	낮후-	낮후- 얕추-	낮후-	낮후-	낮후- 얕이-	낮후-	낮후-
애	없애- (無)	없애-	없애-	없애-	없애-	없애- 없이-	없애- 없이-	없애- 없이-	없애- 없이-	없애- 없이-

[표7] 《보고서》에서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

	표준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이	녹이- (融)	녹이- 녹히-	녹이- 녹히-	녹이- 녹히-	먹이-	녹이- 녹후- 녹히-	녹후- 녹히-	녹이- 녹히- 녹후-	녹이- 녹히- 녹후-	살리- 살려주-
	보이- (見)	보이- 보이키-	보이- 보키-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히	입히- (服)	입히-	입히-	입히-	입히-	입히-	입히-	입히-	입히-	입히- 입지-
	씩히- (腐)	씩히- 씩이-	씩히- 씩이-	씩히- 씩후- 씩이-	씩히- 씩후-	씩후- 씩히- 씩이-	씩히- 씩후-	씩히- 씩후-	씩히- 씩후-	씩이- 씩히-
	앉히- (坐)	앉히- 앉후-	앉히- 앉후-	앉히-	앉히-	앉히- 앉후-	앉히- 앉후-	앉히-	앉히-	앉히- 앉지-
기	벗기- (脫)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벗기-
	웃기- (笑)	웃기-	웃기-	웃기-	웃기-	웃기-	웃기-	웃기-	웃기-	웃기- 웃지-
	굶기- 飢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기-	굶지-
	신기- (履)	신기-	신기- 신키-	신기-	신기-	신기- 신키-	신기-	신기-	신기-	신지-

98) 시애라(영풍, 봉화, 울진, 예천, 상주, 영덕, 영일, 고령, 달성), 시키라(봉화, 문경, 안동, 영양, 청송, 금릉, 선산, 군위, 성주, 경산, 영천, 월성)

99) 씨이라(합천, 울주, 산청, 의령, 하동, 의창, 김해, 고성, 남해, 통영, 거제), 씨아라(진양)경

	숨 기 - (隱)	숨기-	숨기-	숨기-	숨기-	숨기- 숨구-	숨기- 숨구-	숨기-	숨기-	꼭지-
리	알리- (知)	알리- 알구-	알 리 - 알구-	알리- 알구-	알리-	알기- 알리- 알키-	알 리 - 알류-	알리-	알리- 알류-	알리- 알려주-
	얼리- (凍)	얼리- 얼구-	얼구- 얼리-	얼리- 얼구-	얼리- 얼구-	얼 리 - 얼구- 얼우-	얼리- 얼우-	얼리- 얼구-	얼리- 얼구- 얼우-	얼리- 얼류-
	살리- (生)	살리- 살구-	살리- 살구-	살리- 살구-	살리-	살리-	살리-	살리-	살리- 살류-	살리- 살려주-
	늘리- (增)	늘리- 늘구-	늘리- 늘구- 늘기-	늘리- 늘구- 늘쿠-	늘리-	늘리- 늘구- 늘우-	늘리-	늘리- 늘구-	늘리- 늘류-	늘리-
	말리- (禁)	말리-	말리-	말리-	말리- 말기-	말리- 말기-	말리- 말기-	말리- 말기-	말리- 말기-	말리-
	말리- (乾)	말리-	말리- 말루-	말리- 말류-	말리-	말루- 말리- 말류-	말류- 말리- 말리-	말리- 말류-	말리- 말류-	말리- 말류-
우	깨우- (乾)	깨우-	깨우-	깨우-	깨우-	깨우-	깨우-	깨우- 깨-	깨우- 깨-	깨우-
	돈우- (昇)	돈우- 돈구-	돈우- 돈구-	돈구-	돈우- 돈구- 올리-	돈우- 돈구-	돈우- 돈구-	돈우- 돈구-	돈우- 돈구-	돈우- 올리-



### 3.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변화

앞에서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사동사의 양상을 사동접미사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동일한 어기 말음에도 방언에 따라 결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이-, -우-’계 사동접미사를 나눠서 사동접미사의 결합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 방언 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시기에 약 20~30년 이상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두 자료집에 의해서 조사된 결과 역시 차이가 있다. 3장에서는 두 자료의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 3.1. ‘-이-’계 사동접미사

먼저 ‘-이-’계열 사동접미사는 ‘-이-, -이우-, -히-, -리-, -리우-, -기-, -키-, -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 -이우-, -리-, -히-, -기-’가 모든 방언에 확인된다.

##### 3.1.1. ‘-이-’와 ‘-이우-’

‘-이-’는 일반적으로 파열음 중 경음이나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 평파열음 중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반면에 ‘-히-’는 평음 ‘ㄱ, ㄷ, ㅂ, ㅈ’ 등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표준어에서 ‘ㄱ’ 말음 어기에 ‘-히-’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방언에 따라 ‘-이-’결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확인된다.

(51)		<경기 파주·화성·포천·양주·강화·김포·양평>, <강원 철원·인제·고성·평창·명주·정선·삼척>, <충북 제원·증원·음성·진천·괴산>, <충남 당진·아산·공주>, <경북 울진·영덕>, <제주 전역>
(ㄱ)	씩이-(씩히-, 腐)	
(ㄴ)	묵이-(묵히-, 置)	<경기 연천·파주·양주>,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춘성·홍천·횡성·평창·명주·정선>, <충남 예산·홍성·서천·대덕>, <경북 울진·예천·안동>, <전남 신안·무안·나주·영암·진도·강진·완도>
(ㄷ)	식이-(식히-, 冷)	<강원 양구·화천·춘성·인제·평창·삼척>, <경북 삼척·울진·영덕·영일>, <제주 전역>

한편, 표준어에서 ‘-애-’와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 ‘없-’에 ‘-이-’와 결합하여 파생된 ‘없이-’가 일부 방언에 나타나는데, 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없이-’는 (52)와 같이 <전라>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다.

(52)	<u>방언형</u>	<u>분포지역</u>
	없이다	<경북 영덕>, <경남 하동>, <전북 옥구·익산·완주·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구례·광산·신안·나주·승주·광양·진도·강진·고흥·완도>, <제주 북제주>

‘-이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한다(‘뛰우-, 재우-, 씌우-’ 등). 그런데 일부 방언에서는 ‘-이우-’가 아니라 ‘-이-’만 결합되기도 한다.

(53)	<u>방언형</u>	<u>분포지역</u>
	뛰다(뛰우-)	<경북 상주·의성·영천·영일·경산·고령·청도>, <경남 밀양·양산·사천>
	재다(재우-)	<경남 합천·양산>
	씨다(씨우-)	<경북 영풍·봉화·울진·예천·상주·영덕·영일·고령·달성> <경남 합천·울주·산청·의령·하동·의창·김해·고성·남해·통영·거제·진양>

### 3.1.2. ‘-히-’

‘-히-’는 평파열음 ‘ㄱ, ㄷ, ㄴ’이나 평파찰음 ‘ㅈ’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어기 말음 ‘ㄷ’은 거의 모든 방언에서 ‘-히-’가 통합된다. ‘밝히다(밝-)’의 방언형 중에서 사동 구문(‘밝게 하다’)을 제외하면 ‘ㄷ’ 말음 어기에는 거의 모두 ‘-히-’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 역(1999)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에서는 ‘ㄷ’으로 끝나는 어기에 ‘-이-’와 결합하여 사동사 ‘븨기다’를 파생시켰다. 17세기~19세기에는 다시 ‘-히-’ 접미사와 결합하여 ‘븨키다’로 나타나는데, 동일한 ‘ㄷ’어기에서의 ‘-이/히-’ 교체가 보인다. 하지만 《자료집》에서 ‘읽히다’와 ‘밝히다’의 방언형을 보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ㄷ’ 말음 어기에 대부분 ‘-히-’접미사가 통합된다.

‘ㄱ’ 말음 어기의 결합 양상과 달리 ‘ㄴ’말음 어기인 ‘잡-, 입-, 눕-’은 전국 방언에서 모두 ‘-히-’와 결합된다. ‘넓히다’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넓히다(넓-)’의 방언형을 살펴보면 방언에 따라 파생 어기에 차이가 있다. 많은 방언에서 ‘너르다’가 ‘너리고, 너리니, 널러’의 활용 패러다임을 보이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이 어기의 기저형을 ‘너리-/널르-’로 보면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 방언에 따라 ‘-구/쿠/추-’등 다양한 접미사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파생어기의 말음이 ‘ㄴ’의 경우 대부분 지역어에서는 ‘-히-’로 통합되지만 <경남 합천>에서는 ‘-후-’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가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ㄱ’ 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진원지가 <경남>인 것으로 추측된다. ‘-후-’는 <경남>에서 ‘ㄴ’말음 어기에도 결합된다.

(54)	파생어기	접미사	분포지역
너르-	-리-		<경기 시흥·광주>, <충북 괴산>, <경남 김해·남해>,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부안·정읍·임실·고창·순창>, <전남 정선·영암·광양·무안·함평·구례>, 북제주
	-구-		<강원 철원, 화천, 평창>, <충북 제원·영동·옥천>, <경북 울진>
	-쿠-		<경기 이천>, <강원 인제·원성·정선>, <경남 산청·진양·양산·사천·거제>, 전북<장수>
	-추-		<전남 승주>

또한 ‘맞-’은 표준 한국어에서는 ‘-후-’가 결합되어 사동사가 파생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히-’가 결합된다. 그 양상은 방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맞히-’는 (55)와 같이 <경기, 충북, 전라> 등의 지역에서 나타난다.

(55)	방언형	분포지역
맞히다		<경기 강화·고양·양주·남양주·광주·평택>, <강원 양양>, <충북 옥천·영동>, <전남 영광·함평>, <전북 고창·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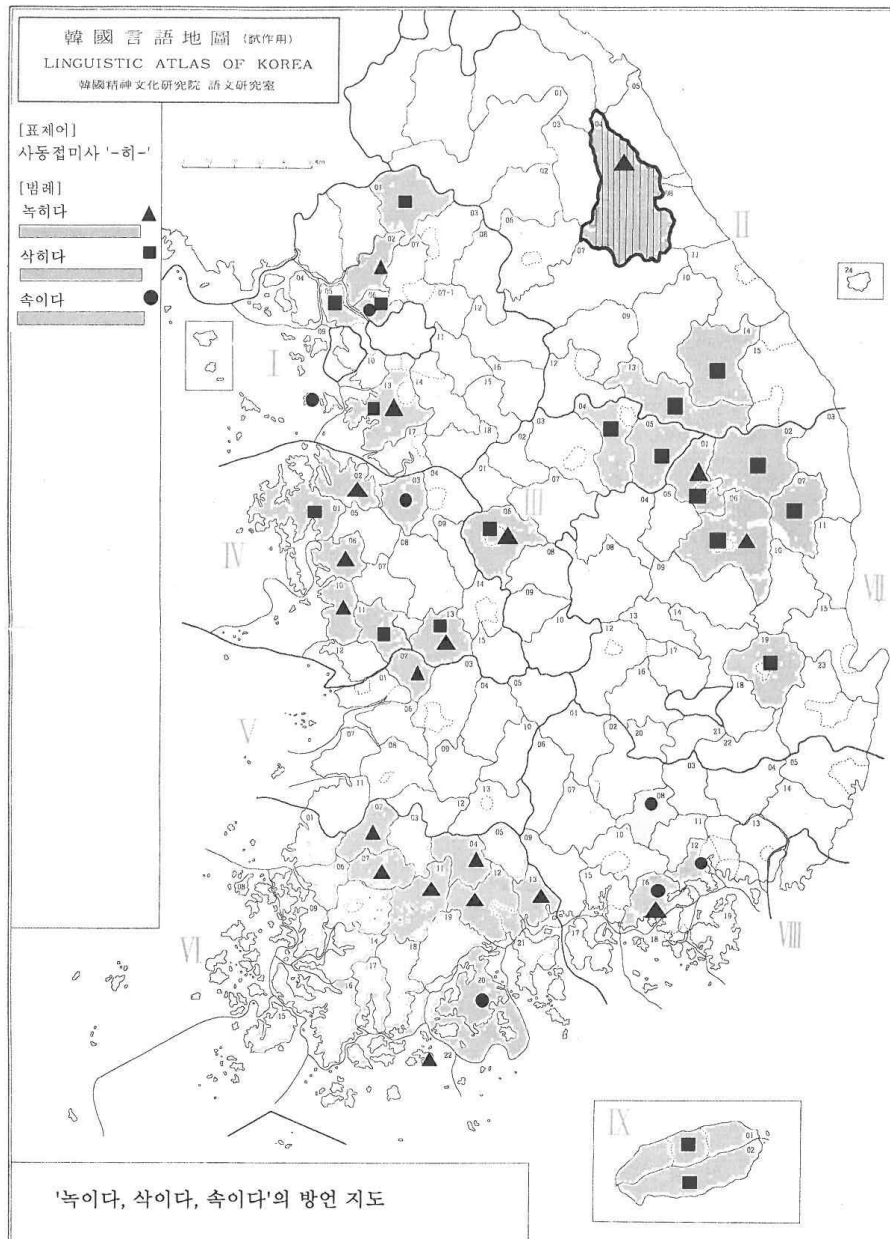
한편, 다음의 (56)과 같이 표준 한국어에서는 ‘-이-’와 결합되는 사동사가 일부 방언에서는 ‘-히-’ 결합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동일한 ‘ㄱ’ 말음 여기에 사동접미사 ‘-이-’와 ‘-히-’가 수의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56)	방언형	분포지역
(ㄱ)	속히-(속이-, 歎)	<경기 고양·웅진>, <충남 아산>, <경남 의령·의창·고성>, <전남 나주·화순·고흥>
(ㄴ)	삭히-(삭이-, 消)	<경기 연천·화성·고양·김포>, <강원 정선·영월>, <충북 단양·제원·음성·청원·옥천·영동>, <충남 서산·부여·논산>, <경북 영풍·봉화·안동·영양·영천>, <전북 남원>, <전남 해남>, <제주 전역>
(ㄷ)	녹히-(녹이-, 溶)	<경기 파주·화성>, <충북 단양·청원·옥천>, <충남 당진·홍성·보령·논산·대덕·금산>, <경북 영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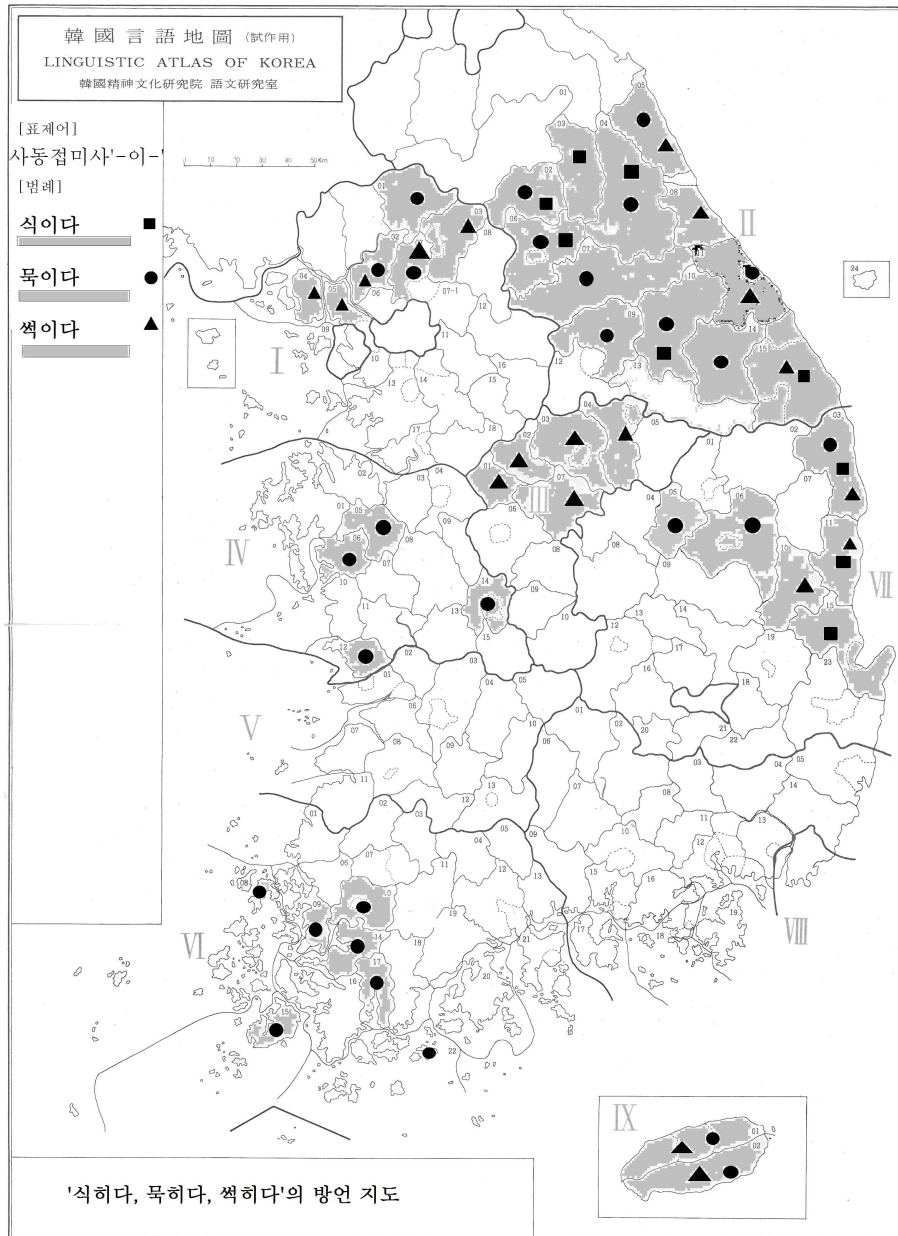
동·상주·금릉>, <경남 밀양·의령· 고성>, <전북 익산·부안·임실·남 원>, <전남 장성·곡성·구례·광산· 화순·송주·광양·완도>
---

지도를 통해서 ‘ㄱ’ 발음 어기의 ‘-이~히-’ 결합형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2]는 ‘녹히다, 삭히다, 속히다’의 방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도2]에서 촘촘한 수직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자료집》에서는 <강원 인제>의 경우, ‘녹-’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녹이다’로 실현되지만 《보고서》에서는 ‘녹히다’로 변화되었다. [지도3]은 ‘식이다, 묵이다, 썩이다’의 방언 분포 지도이다.

[지도 2] 'X-]v.st.+히-'의 방언 분포



[지도3] 'X-]v.st.+-이-'의 방언 분포



[지도2]와 [지도3]을 비교함으로써 대부분 방언에서 동일한 ‘ㄱ’ 발음 어기의 ‘-히-’와 ‘-이-’의 결합이 어휘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수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어에 따른 특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ㄱ’ 발음 어기의 ‘-이~히-’ 결합형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기, 충남, 전남, 경북>에서는 동일한 어기에 하위 방언에 따라 ‘-이-’, ‘-히-’ 결합형이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전북>에서는 동일한 ‘ㄱ’ 발음에 대하여 ‘-이-, -히-’의 수의적인 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둘째,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녹히-(녹이-), 속히(속이-), 삭히-(삭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썩-, 묵-, 식-’ 어기에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썩이-, 묵이-, 식이-’는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ㄱ’ 발음 어기에 ‘-이-’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남>에서는 ‘ㄱ’ 발음 어기에 ‘-히-’는 결합되지 않는다. ‘ㄱ’ 발음 어기의 ‘-히-’ 결합형은 <경남>에서부터 서북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강원>에서 ‘녹히다, 삭히다, 속히다’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인제>에서 ‘녹히다’도 출현된다. 이와 같이 <강원 인제>는 인근 지역과 다른 언어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방언섬’(language island)이라 볼 수 있다.<sup>100)</sup>

한편, ‘ㄱ’ 발음 어기에 대한 ‘-이-’와 ‘-히-’의 결합은 수의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음운론적인 규칙성을 찾기가 힘들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ㄱ’ 발음 어기에 대하여 ‘-이-’ 결합형이 ‘-히-’ 결합형보다 우세를 보인다. 그리고 《자료집》에서는 <제주>는 전역에 걸쳐 ‘썩히다’가 ‘썩이다’로 나타난다. 즉 <제주>에서는 ‘ㄱ’ 발음 어기에 대하여 ‘-이-’ 결합형이 ‘-히-’결합형보다 우세를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북제주> 지역에서 표준 한국어와 동일한 형태인 ‘썩히다’도 나타나며, 일부 지역

100) 정승철(2013)에 따르면 어떤 지역이 개신교의 영향을 받으면 해당 지역은 인근 지역과 전혀 다른 언어 특징을 간직하는 언어섬(language island 또는 speech island)이 된다. 방언의 차원에서 이를 ‘방언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언어섬’의 형성은 대체로 해당 지역의 역사, 행정구역의 재편, 이주 등과 관련이 있다.



에서는 ‘씩이-/씩히-’가 혼용되어 쓰인다. 이는 표준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3.1.3. ‘-리-’와 ‘-리우-’

‘-리-’ 접미사는 모든 방언에서 ‘ㄹ’ 발음 어기나 ‘ㄷ’불규칙 어기, ‘르’불규칙 어기에만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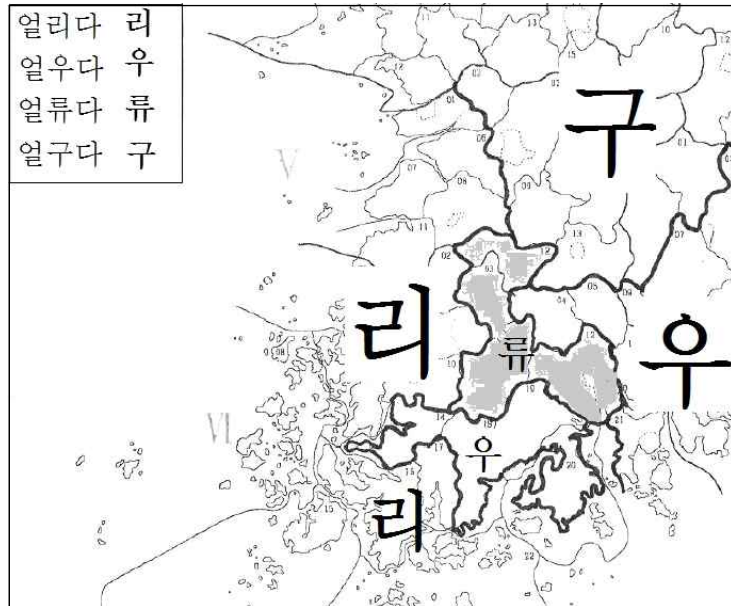
한편, ‘-리우-’가 축약되어 형성된 ‘-류/루-’가 발견된다. ‘-리우-’는 사동접미사 ‘-리-’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경기,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경남, 제주> 등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지도4]는 ‘얼리다(얼-)’의 방언 지도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초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보였다. <전남 장성·광양·나주·강지·무안>, <전북 정읍·고창·김제·부안>에서는 ‘얼리다’가 나타나는 반면에 <전남 영암·장흥·보성·고흥·곡성·구례·광양·여천>에 ‘얼우다’가 나타난다. 두 가지 다른 방언형이 분포되는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는 <전남 담양·화순·송주>, <전북 순창> 등의 접촉 지역에서는 새로운 형태인 ‘얼류다(얼리우다)’가 출현한다. 이것은 방언접촉에 의해 발생한 신형의 자극에 의해서 촉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핵방언들의 언어 특징이 섞이거나 바뀌어 새로운 언어 특징을 보이는 것은 융합이라고 한다.<sup>101)</sup>

---

101) 정승철(2013)에 따르면 접촉방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각 핵방언들의 언어 특징이 병존한다, 2) 한 핵방언의 언어 특징이 다른 핵방언의 언어 특징에 편입된다, 3) 각 핵방언들의 언어 특징이 융합한다. 등이다. 이 중 융합은 그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병렬, 절단, 대체, 혼효’등으로 나뉜다.

[지도4] ‘얼리다’의 <전라>방언 지도



#### 3.1.4. ‘-기-’

‘-기-’ 접미사는 모든 방언에서 비음 ‘ㄴ, ㄹ’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음 ‘ㅅ’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한다. 그 밖에 ‘뜯-, 말-’에 결합되어 형성된 ‘뜯기다, 말기다’도 전국에서 나타난다. ‘말기다’의 경우는 모든 방언에서 ‘ㅌ’말음 어기에 ‘-기-’와 결합된다. ‘말기다’에 대해 김완진(1973)에서는 ‘땀이다>맛지다>말기다’로 설명하였다. 즉 중세 한국어에서 ‘땀-’이 ‘-이-’와 결합하여 ‘땀디다’가 되는데 ‘디’가 구개음화를 겪어서 ‘맛지다’로 변화하였는데 다시 접사 ‘-이-’가 분석되어 ‘말이다’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경우 ‘땀-’에 ‘-히-’가 결합된 ‘땀

히-’와 동음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 때문에 ‘말이다’가 아닌 ‘말기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피동사에서도 ‘ㅌ’에 ‘-기-’와 결합한 ‘훑기다’가 일부 방언에서 나타난다. 마찰음 ‘ㅅ’으로 끝나는 어기 ‘벗-, 옷-’에는 전국적으로 ‘-기-’가 결합된다.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는 대부분의 방언에서 ‘-기-’가 결합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의적으로 경음인 ‘-끼-’나 격음인 ‘-키-’로 나타난다.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 뒤에서 ‘-기-’ 접미사가 경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용언 어간 말 비음 뒤 경음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언 어간 비음 뒤 경음화 현상에 대해 김성규(1987:55-59)에서는 중부방언의 피·사동과생어를 대상으로 피·사동접미사의 결합이 공식적인 결합이 아니므로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방언에서는 ‘신끼다’뿐만 아니라 ‘신키다’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의 경음과 격음의 수의적인 교체도 많이 관찰된다.

《보고서》에서는 ‘숨기다, 감기다, 굶기다, 신기다’의 방언형 중에 동일한 어기에 대해 지역어에 따라 ‘-기~끼~키-’의 교체가 관찰된다. 경음화에 비해서는 유기음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sup>102)</sup>

[표8] 비음 말음 어기+ ‘-기-’의 경음화, 유기음화 양상

	비음 말음 어기+ ‘-기-’의 경음화, 유기음화 양상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기다	×								
감기다 <sup>103)</sup>	○	×	×	×	●	●	●	●	
숨기다 <sup>104)</sup>	×	×	×	×	●	●	●	○	×
굶기다	×	×	×	×	×	×	×	×	-
신기다 <sup>105)</sup>	×	○	●	●	●	●	●	●	-

102) 해당 지역어에 경음화나 유기음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로 표기하고, 해당 방언에서 경음화만 나타난다면 ‘●’로 표기하며, 유기음화가 나타난다면 ‘○’로 표기하여 경음화나 유기음화된 어형이 모두 존재한다면 ‘●’로 표기된다.

103) 경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전북 장수, 남원>, <전남 곡성, 화순, 강진, 고흥>, <경북 경산>, <경남 합천>등이고 유기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강원 영월>, <경북 예천, 의성, 상주> 등이다.

104) 조사된 지역 중에서 <전남 곡성, 진도, 보성, 영암, 신안, 광양>, <전북 고창, 임실>, <경북 고령, 청도>에서 유기음화가 나타나고 경상남도 전역에서 유기음화된

[표8]을 보면 경음이나 격음의 교체가 지역이나 어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모두 ‘-기-’ 접미사로 본다. 즉, ‘-끼-’는 경음화, ‘-키-’는 유기음화를 겪은 형태라는 것이다.

‘-기-’ 접미사의 결합 양상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부 방언에서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여 사동사가 파생되는 것이다. [지도5]를 통해서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대한 ‘-기-’ 결합형의 방언 분포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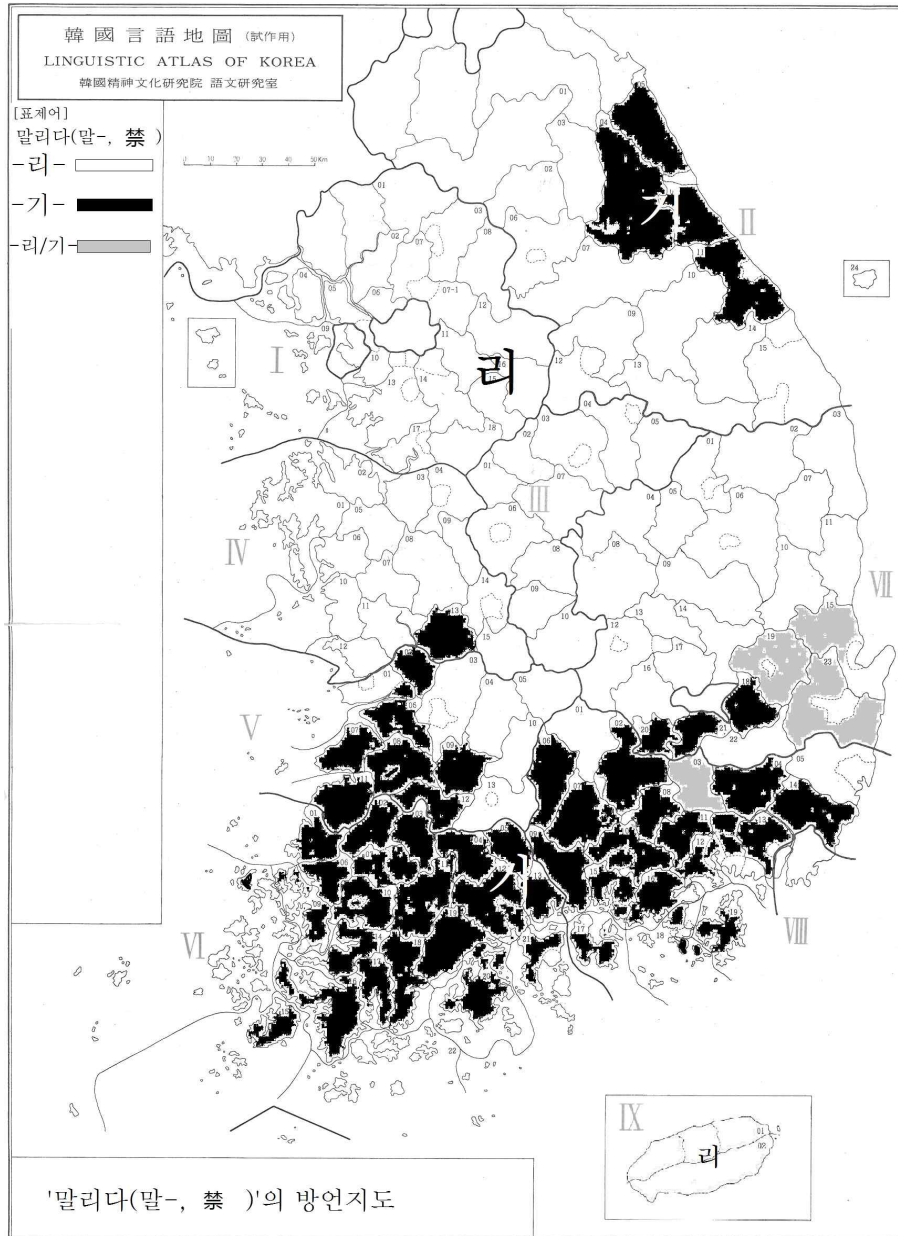
대부분 지역에서는 ‘말리다’가 나타나지만 <강원, 전남, 경남, 경북>등 지역에서는 ‘-리-’대신에 ‘-기-’ 결합형이 나타난다. 특히 <경북>의 동남부와 <경남>의 일부 지역에는 ‘말리다/말기다’가 혼용되어 쓰이는 특징이 있다.

---

예가 관찰된다.

105) 경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전남 곡성, 영광, 보성, 영암, 신안>, <전북 완주, 남원, 무주, 군산>, <경북 경주, 의성>, <충남 대전, 논산, 서천>, <충북 영동>등이다. 반면에 유기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은 <충북 제천, 충주, 옥천, 영동>, <충남 공주, 서산, 천안>, <경기 용인>, <경남 창녕, 산청, 남해, 하동>, <경북 상주, 봉화>, <전북 고창>, <전남 고창, 임실> 등이다.

[지도5] '말리다'의 방언 지도



‘ㄹ’ 발음 어기의 ‘-기-’ 결합형은 어휘에 따라 차이가 크다.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수집된 ‘ㄹ’ 발음 어기에 ‘-기-’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와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늘기다, 알기다’는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데 ‘말기다’의 출현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57)	<u>방언형</u>	<u>분포지역</u>
	(ㄱ) 알기다	<강원 양구>, <경북 월성>, <경남 거제>
	(ㄴ) 늘기다	<경북 상주>, <강원 홍천>

최명옥(2008: 20)에서는 경주 지역어에서 ‘ㄹ’로 끝나는 어기 뒤에 현대 한국어에서는 ‘-리-’가 통합되어 있지만 그것은 원래 ‘-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통시적으로 발음 ‘ㄹ’의 어기 뒤에 ‘-이-’와 결합한 것이 ‘ㄱ약화’의 과정을 겪어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sup>106)</sup>

정용호(1988), 곽충구(2004), 이춘영(2015)에 따르면 함북 방언에서는 피동접미사 ‘-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함경도 방언에서는 ‘-리-’대신 발음 ‘ㄹ’, ‘ㄷ’불규칙이나 ‘ㄹ’불규칙 어기에 ‘-기-’가 결합된다. 하지만 남한의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는 피동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형성된 피동사가 없고 사동사에서 ‘ㄷ’불규칙이나 ‘ㄹ’불규칙 어기에 ‘-기-’가 결합한 경우도 없다는 점에서 북한 방언과 차이가 있다.<sup>107)</sup>

한편,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의 차이를 보겠다. 《자료집》에서는 ‘말-’에 ‘-기-’가 결합하여 파생된 ‘말기다’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보고서》에서의 ‘말기다’의 출현 지역이 《자료집》보다 더 적다.

106) 통시적인 자료를 보면 중세 한국어의 문헌에서 ‘말이-’<용94,석13:46b>, 울이- <두초9:19a>’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때는 ‘ㄹ’나 ‘j’로 끝나는 어기 뒤에서 어미 초의 ‘ㄱ’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다. 16세기 후반 문헌에서 ‘ㄱ’ 탈락하지 않은 활용형이 나타났지만 ‘말이’나 ‘울이’는 공식적으로 분석될 수 없는 단일 형태소이기 때문에 ‘울기’나 ‘말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말이’나 ‘울이’는 발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리’와 ‘우리’를 피하고 ‘ㄹ’뒤에 ‘ㄹ’을 더 삽입하게 되었다.

107) 정용호(1988)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단어에서 ‘역사적인 발음 ‘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어휘적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곽충구(2014) 등에서는 이에 대해 함북 방언의 큰 특징으로 고형을 반영한다고 하였지만 이 특징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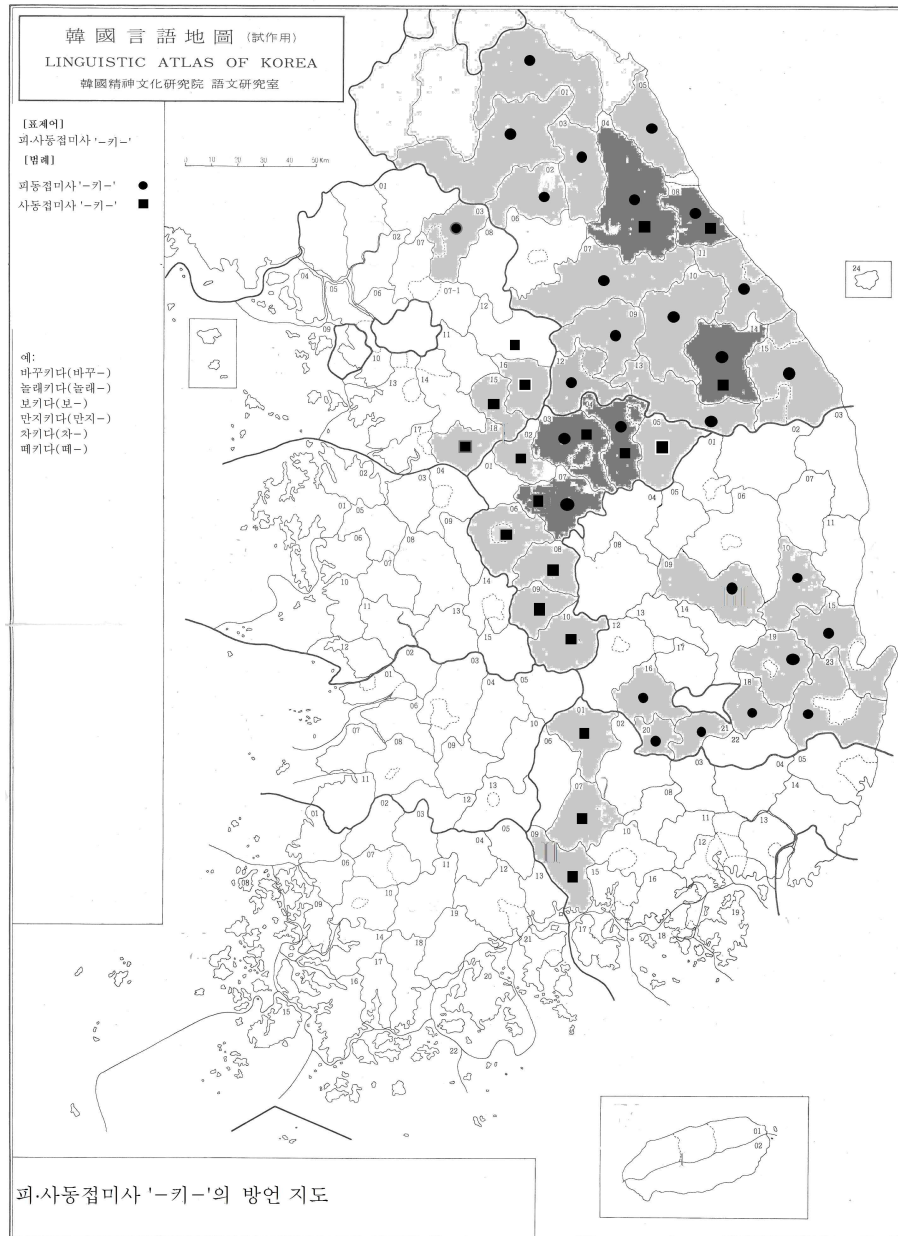
<강원>에서는 완전히 ‘말리다’로 대체되었으며, <경북, 경남, 전북, 충남>에서는 ‘말기다’와 ‘말리다’가 공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남> 방언의 전역에서는 아직 ‘말기다’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ㄴ’말음 어기에 ‘-기-’ 결합되는 것은 <전남>에서 뿌리가 깊다고 추측할 수 있다.

(58) 말리다/말기다	<div>&lt;충남 논산&gt;, &lt;전북 임실·남원&gt;, &lt;경북 월성&gt;</div> <div>&lt;경남 합천·의령&gt;</div>
--------------	---

### 3.1.5. ‘-키-’

‘-키-’접미사는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된다. 사동사에서의 ‘-키-’접미사의 출현은 피동사에 비해서 많지 않다. [지도6]은 피·사동접미사 ‘-키-’의 방언 분포 지도이다. <강원, 충북>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는 피동접미사 ‘-키-’와 사동접미사 ‘-키-’가 모두 나타나고 [지도]에서 더 진한 색깔로 표기된다.

[지도6] 피사동접미사 ‘-키-’의 방언 지도





사동접미사 ‘-키-’는 <강원, 경기> 등의 일부 지역의 개별 어휘에서만 발견된다. 특히 <경기 남양주>에서는 ‘뛰게 하다’ 통사적 사동 구문 대신에 ‘뛰-’에 ‘-키-’가 결합되어 파생된 ‘뛰키-’가 나타난다. 사동사에서보다 피동사에서 ‘-키-’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강원, 경기, 충북, 경북> 등의 지역에서 출현한다.

특히 <강원>에서는 이미 파생된 여기에 다시 ‘-키-’가 결합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다(걸리키다(걸리-+-키-, 걸-), 앓히키다(앓히-+-키-)).<sup>108)</sup> 김옥영(2013)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이-’계 접미사 뒤에 ‘-키-’가 덧붙이는 것은 격음을 음절 두음으로 하는 접사를 통해서 피·사동 표현을 강화하는 한편, 접사 목록들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 유지와 관련된다. 실제로 <강원>의 피·사동사 양상을 보면 하위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다.

### 3.1.6. ‘-지-’

‘-지-’접미사는 <제주>에만 나타나는 사동접미사이다. ‘-지-’는 비음으로 끝나는 여기에 가장 많이 결합되고 ‘입-, 웃-’ 여기에도 결합된다. 따라서 ‘-

108) <강원>의 이중피·사동접미사 ‘-키-’와 같이 방언에서 많이 보이는 중첩형태는 새로이 나타나게 된 현상이 아니고 현대국어의 피·사동형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특히 방언에서 나타나는 중첩접사들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와 가까운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의 보편적인 기능은 피동성이나 사동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방언에서 중첩형태는 각 지역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강원도에서 ‘-이-’계 접미사 뒤에 ‘-키-’가 덧붙이는 것은 격음을 음절 두음으로 하는 접사를 통해 피·사동 표현을 강화하는 한편, 접사 목록들 사이에 형태적 유사성 유지와 관련된다.

반면에 경상도의 중첩접사는 표기상으로 중첩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어의 음장, 성조 등 운율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박충구(1991)에서 <함북 육진>방언의 중첩피동접사의 악센트를 조사한 결과 1차 파생에 이어 다시 파생접사가 파생된 경우(본고에서는 ‘중첩형태’로 본다)에는 악센트가 최종접사 ‘-우-’ 쪽에 놓인다고 밝혔다(불들리다 ⇒ 불들리우다). 하지만 <지역어>에 조사된 <경남 창원>의 중첩형의 악센트의 경우, ‘-이-’가 덧붙을 때 악센트의 변화가 없다(잡히다 ⇒ 잡히이다).

따라서 각 방언의 중첩형태는 그 방언권의 음운론적이나 형태론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이중 접사가 생성될 때 여러 접사 가운데 강원도에서의 ‘-키-’나 함북에서의 ‘-우-’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를 선택함으로써 접사목록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된다.

지-’는 일반적으로 사동접미사 ‘-기-, -히-’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송상조(1991)에서는 ‘-지-’에 의해서 파생된 사동사를 제시하면서 제주도의 접미사 파생력 순서는 ‘-우->-이->-지->-기->-리-’의 순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sup>109)</sup>

### 3.1.7. 소결

앞에서 ‘-이-’계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계 사동접미사는 ‘-이-, -이우-, -히-, -리-, -리우-, -기-, -키-, -지-’ 등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열음 중에 평음이나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음 ‘ㅎ’,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평파열음 중에 ‘ㄱ’ 발음 어기에만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ㄱ’ 발음 어기라도 방언에 따라 결합 양상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 충남, 전남, 경북>에서는 동일한 어기에 하위 방언에 따라 ‘-이-’, ‘-히-’ 결합형이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전북>에서는 동일한 ‘ㄱ’ 발음에 ‘-이-, -히-’의 수의적인 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ㄱ’ 발음 어기에 ‘-이-’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ㄱ’ 발음 어기의 ‘-히-’ 결합형은 보이지만 ‘-이-’결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ㄱ’ 발음 어기의 ‘-히-’결합형은 <경남>에서부터 서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된다. ‘-히-’는 평파열음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리-’는 모든 방언에서 유음이나 ‘ㄷ’불규칙,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만 결합할 수 있다. ‘-리우-’는 ‘-리-’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경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난다. ‘-기-’는 모든 방언에서 비음 ‘ㄴ, ㄹ’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음 ‘ㅅ’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

109) 이송녕(1985)에서는 ‘-지-’결합형이 제주도 방언의 사동형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기에도 결합한다. 그 밖에 ‘뜯-, 말-’에 결합되어 형성된 ‘뜯기다, 말기다’도 전국에서 발견된다. 가장 큰 특징은 <경남, 전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 ‘ㄱ’ 발음 여기에 ‘-기-’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경음이나 격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키-’는 <강원, 충북, 경북> 등의 지역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된다. 특히 ‘-키-’는 <강원>에서 중첩접사로 나타난다. ‘-지-’는 <제주>에서만 보이는 접미사인데 주로 ‘-기-, -히-’가 결합하는 비음이나 마찰음 ‘ㅅ’, 평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되는 특징이 있다.

‘-이-’계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에 대해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차이가 보이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두 자료 간에 지역어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ㄱ’ 발음에 ‘-이-, -히-’가 수의적으로 결합되는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진다.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하는 양상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며, <강원>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표9]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 비교

사동사	자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녹이- (融)	자	-이- -히-	-이-	-이- -히- -후-	-이- -히-	-이- -히- -후-	-히- -후-	-이- -히- -후-	-이- -히- -후-	-이-
	보	-이- -히- -후-	-이- -히-	-이- -히- -후-	-이- -히-	-이- -히- -후-	-후-	-이- -히- -후-	-이- -히- -후-	-이-
씩히- (腐)	자	-이- -히-	-이- -히-	-이- -히- -후-	-이- -히- -후-	-이- -히- -후-	-히- -후-	-히- -후-	-후-	-이-
	보	-이- -히-	-이- -히-	-이- -히- -후-	-히- -후-	-이- -히- -후-	-후-	-히- -후-	-히- -후-	-이- -히-
말리- (禁)	자	-리-	-리- -기-	-리-	-리- -기-	-리- -기-	-리- -기-	-리- -기-	-기-	-리-
	보	-리-	-리-	-리-	-리- -기-	-리- -기-	-리- -기-	-리- -기-	-기-	-리-

## 3.2. ‘-우-’계 사동접미사

‘-우-’계열 사동접미사는 ‘-우-, -구-, -쿠-, -후-, -추-’ 등이 있다. ‘-우-’는 모든 방언에 나타나지만 ‘-추-, -후-’ 등은 일부 방언에서만 출현된다.

### 3.2.1.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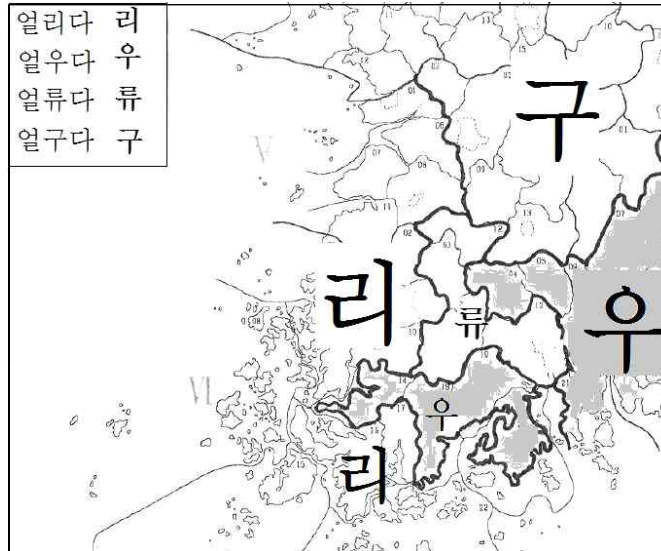
‘-우-’계 접미사 가운데 ‘-우-’는 현대 표준어에서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한다. ‘ㄹ’말음 어기에 표준 한국어에서는 ‘-리-’가 통합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우-’가 통합되어 사동사를 파생한다. [지도7]은 ‘얼리다(얼-)’의 방언 지도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초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방언에 따라 ‘얼-’에 ‘-리-,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나타난다. <경북, 경남, 전남>의 일부 하위 방언에서는 ‘얼우다’가 나타나는데, 그 중 특히 <경남>에서 ‘얼우다’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우-’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sup>110)</sup>

---

110) 김형배(1997)에 따르면 ‘얼리다’는 15세기 문헌에서 ‘얼-’에 ‘-우-’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얼우다’로 나타났는데 15세기 이후로는 문헌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중세와 근대를 거쳐 20세기에 들어 ‘얼다’는 ‘ㄹ’말음 어기이므로 사동접미사 ‘-리-’를 결합시킨 ‘얼리다’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경남>이나 이와 근접한 지역에는 ‘얼-’에 ‘-우-’와 결합하여 형성된 ‘얼우다’가 분포되는데 이는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7] ‘얼우다’의 방언 분포



### 3.2.2. ‘-구-, -쿠-’

‘-구-, -쿠-’는 표준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동접미사이다.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ㄹ’말음 어기, ‘ㄹ’불규칙 어기,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데 방언에 따라 차이가 크게 보인다.

먼저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구~쿠-’ 결합형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자. ‘ㄹ’ 말음 어기는 통시적으로 ‘-이-, -히-, -고/구-’ 등 가장 다양한 접미사를 취할 수 있었다. 현대 한국어의 ‘-리-’는 근대 한국어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ㄹ’말음 어기에 거의 모두 접미사 ‘-리-’가 통합되지만 방언에 따라 ‘-리(리우)-, -기-, -구~쿠-, -우-’ 등 다양한 접미사가 결합된다.

‘ㄹ’말음 어기에 ‘-리-’가 아니라 ‘-구-’가 결합되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다.

‘-구~쿠-’접미사가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방언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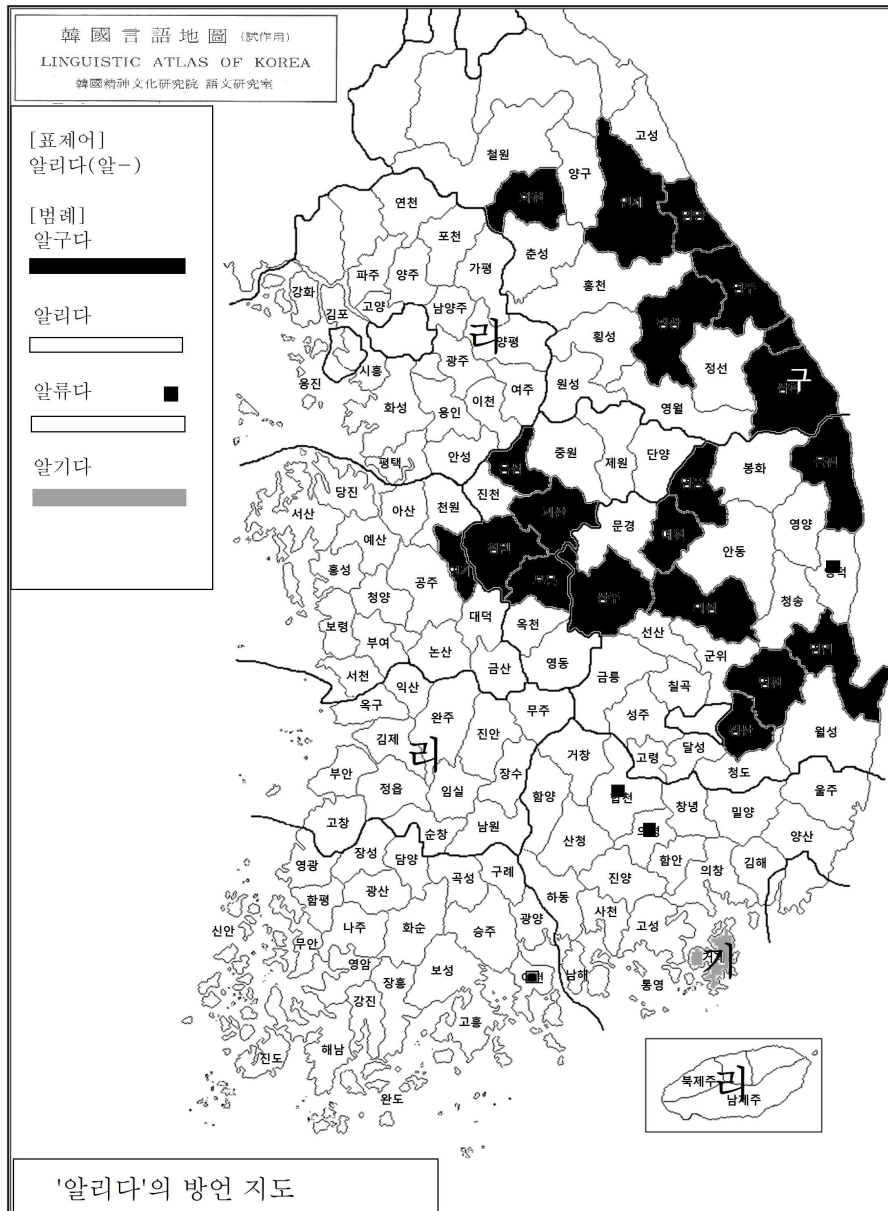
[지도8]은 ‘알리다’의 방언 지도이다. 대부분의 지역어에서 ‘알-’에 접미사 ‘-리-’가 결합되지만 일부 방언에서는 ‘-구-’가 결합된다. ‘-구-’ 결합형이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에서 진하게 표시하였다.

‘알구다’는 주로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 나타나고 특히 <강원>과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반면에 <제주, 경남, 전남, 전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살-, 늘-’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살구다, 늘구다’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59)	<u>방언형</u>	<u>분포지역</u>
(ㄱ)	<u>살구다</u>	<강원 삼척·원주·홍천>, <경기 포천·이천> <강원 양양·인제·홍천·평창·정선·삼척·원성>,
(ㄴ)	늘구다	<경기 포천·강화·양평>, <충북 증원·옥천>, <경북 월성>, <전북 완주·남원>

[지도8] '알리다(알-, 知)'의 방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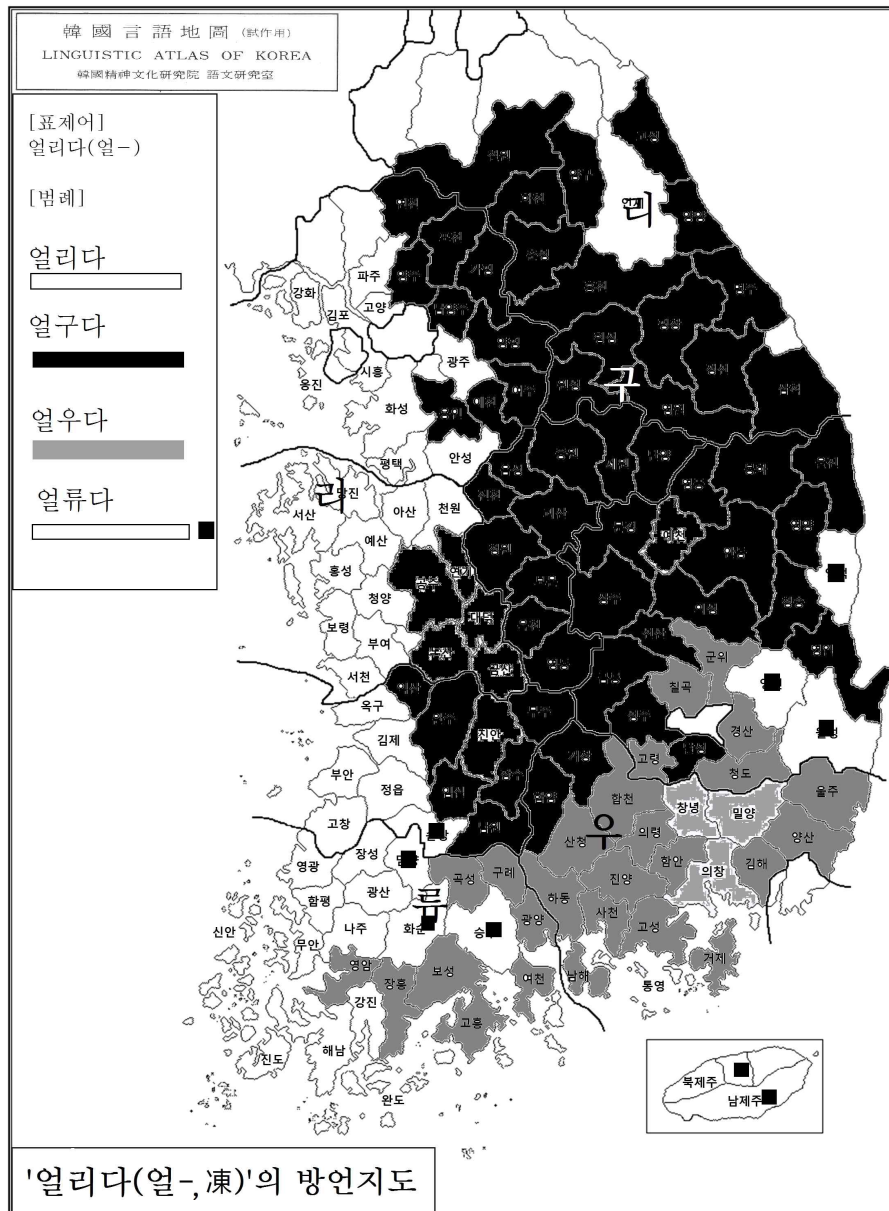


‘ㄹ’ 발음 어기의 ‘-구-’ 결합형은 어휘에 따라 방언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강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지도9]는 ‘얼리다’의 방언 지도이다. ‘얼리다’의 방언 지도를 보면 어기 ‘얼-’에 결합된 사동접미사는 크게 ‘-리-’, ‘-구-’, ‘-우-’가 있다. 특히 ‘얼구다’가 나타나는 지역을 가장 진한 색깔로 표시하였다.



[지도9] '얼리다'의 방언 지도



‘얼구다’는 동북 방언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경기>와 <충남>의 동쪽, <전북>의 동북, <경남>의 서북에서 확인되지, <전남, 제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너르-’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널구-’도 다음(60)과 같이 <강원, 충북, 경남>등의 지역에 나타난다.

(60)	<u>방언형</u>	<u>분포지역</u>
널구~쿠-	<경기 이천>, <강원 철원·화천·평창·인제·원성·정선>, <충북 제원·영동·옥천>, <전북 장수>, <경북 울진>, <경남 산청·진양·양산·사천·거제>	

《보고서》에 따르면 ‘알구다’와 ‘얼구다’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구다’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다. 반면에 ‘얼구다’는 많은 방언에서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인 ‘얼리다’로 변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구-’ 결합형의 분포 지역이 축소되었다. 특히 《자료집》에서는 <충북> 전역에서 ‘얼구다’가 나타났지만, 《보고서》에서는 완전히 ‘얼리다’로 대체되거나 ‘얼리다’와 ‘얼구다’가 공존하게 되었다. <충북>이 중부 방언권에 속하므로 표준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1)	ㄱ. 알구다 → 알리다	<충북 청원>, <경북 봉화>, <경북 상주>
	알리다 → 알구다	<경기 양평·이천>, <강원 정선>, <충북 증원>
	ㄴ. 얼구다 → 얼리다	<강원 삼척>, <충북 제원·청원·보은·옥천·영동>, <충남 논산>
	얼리다 → 얼구다	<강원 인제>, <충남 천원>

한편,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우-’가 결합되는 양상 또한 변화를 보인다. <전남, 경북>에서 ‘얼-’에 ‘-우-’가 결합되었는데, ‘-구-’나 ‘-리-’로 바뀌었다. 이는 <강원>의 ‘얼구-’와 서해안 지역의 ‘얼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는 변함 없이 ‘얼우-’로 나타난다. 유음 말음 어

기에 ‘-우-’가 결합되는 것의 진원지가 <경남>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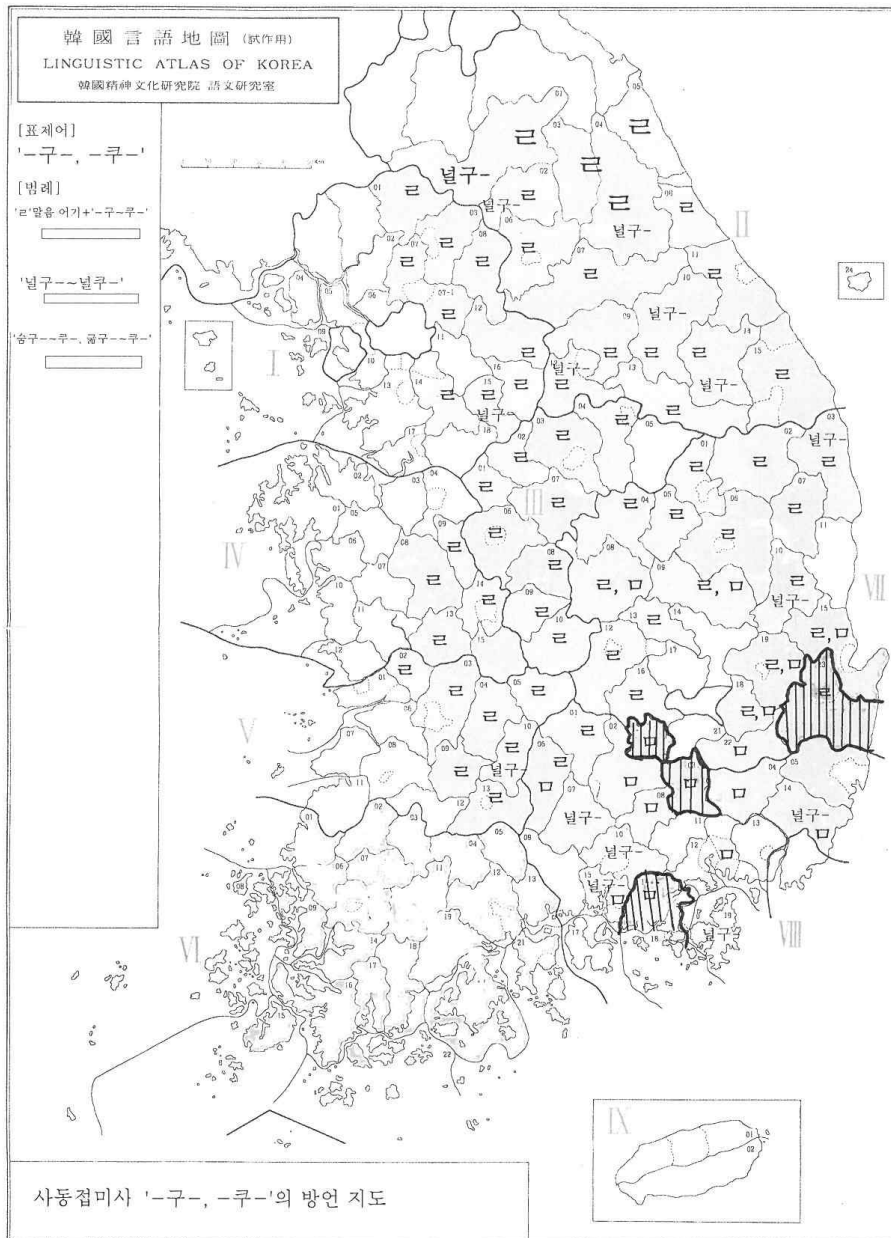
다음으로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의 ‘-구~쿠-’ 결합형의 방언 분포를 살펴 보고자 한다.

(62)	방언형	분포지역
(ㄱ)	숨구-	<경북 상주·의성·영천·영일·경산·고령·청도>, <경남 밀양·양산·사천>
(ㄴ)	굶구-	<경남 합천·양산>

(62)에서 ‘숨구-/굶구-’의 방언 분포를 보면 <경북, 경남>의 일부에서만 ‘ㄱ’ 발음 어기에 ‘-구~쿠-’가 결합된다.

[지도10]은 사동접미사 ‘-구~쿠-’가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방언 분포 지도이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수직선으로 표시하였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굶구-’가 《자료집》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보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숨구~쿠-’의 방언 분포 역시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경북 상주·의성>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숨쿠다’가 나타나지만 《보고서》에서는 ‘숨기-’가 나타난다. <경남> 방언에서는 ‘숨-+-구-’가 나타나는데(<경남 산청·하동·사천·고성·의창>), 이는 고어형이 보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10] 사동접미사 ‘-구~쿠-’의 방언 지도



‘ㄴ’ 발음 어기에 ‘-구-’가 결합된 것은 <강원, 경북, 충북>에서 가장 널리 나타나는 반면에 <제주, 경남, 전남, 충남>의 서부 지역, <전북>의 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굶구-, 숨구-’는 <경북, 경남>에서만 발견된다.

한편, 어기 ‘돋-’의 경우 표준어에서는 ‘-우-’접미사가 결합되는데, <경기, 충북, 강원, 전라>에서는 ‘-구-’가 결합된다. <경상, 제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63)에서 보이듯, <경기, 강원, 경북, 전북, 전남>에서는 ‘돋-’에 ‘-우-’가 아니라 ‘-구-’가 결합된다. ‘돋우다’와 같이 ‘ㄷ’ 발음 어기에 ‘-우-’와 결합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63)	<u>방언형</u>	<u>분포지역</u>
	돋구다	<경기 화성·포천·양평>, <충북 제천·청원·충주·보은·옥천>, <충남 예산>, <전북 무주·임실>, <전남 곡성·보성>, <강원 양양·홍천·인제·평창>

유음이나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구-’가 결합할 때 지역어에 따라 수의적으로 ‘알कु다, 숨कु다’와 같이 유기음 ‘-쿠-’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쿠-’가 ‘-구-’ 접미사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만 나타나고 ‘-구-’와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원>에서는 ‘-쿠-’가 ‘놀래쿠-’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강원>에서는 ‘-키-, -쿠-’와 같이 제2음절의 두음으로 ‘ㄱ’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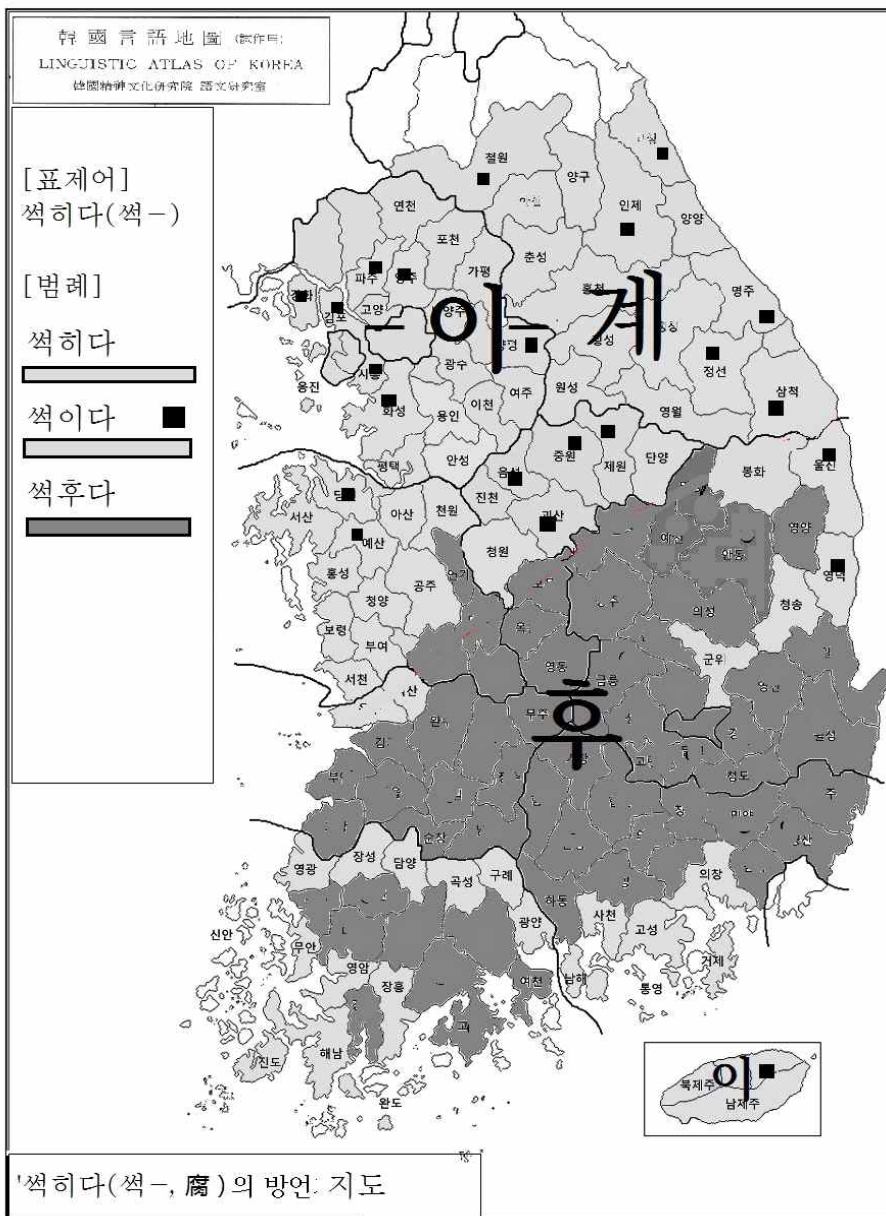
### 3.2.3. ‘-후-’

‘-후-’는 일반적으로 평음 ‘ㄱ, ㄴ, ㄷ’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표준어에서는 ‘ㄷ’으로 끝나는 ‘늦-, 맞-’ 등에만 결합된다.

‘-후-’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ㄱ’으로 끝나는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경남, 전남, 전북, 경북, 충북> 등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경남>에서는 ‘ㄱ’ 말음 어기에는 거의 ‘-후-’만이 통합된다.

먼저 ‘ㄱ’ 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파생된 사동사의 방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11] '씩히다'의 방언지도



[지도11]은 ‘씩히다’의 방언 지도이다. ‘-후-’ 결합형은 지도에서 진한 색 짙으로 표시하였다. [지도11]을 살펴보면 <강원, 경기> 등 북부 지역에서는 ‘ㄱ’ 발음 여기에 ‘-이-’와 ‘-히-’가 통합되며, ‘-후-’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제주>를 제외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남부 방언에서는 ‘씩 후다(씩히-)’가 널리 나타난다. 특히 <충북, 충남>은 지리적인 ‘-이-’계 접미사 결합형과 ‘-후-’ 결합형의 경계선에 위치하는데 두 가지 결합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울진, 영덕> 등의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강원>과 같이 ‘-후-’가 분포되지 않고 ‘-이-’가 통합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경남> 및 <경북> 지역과 여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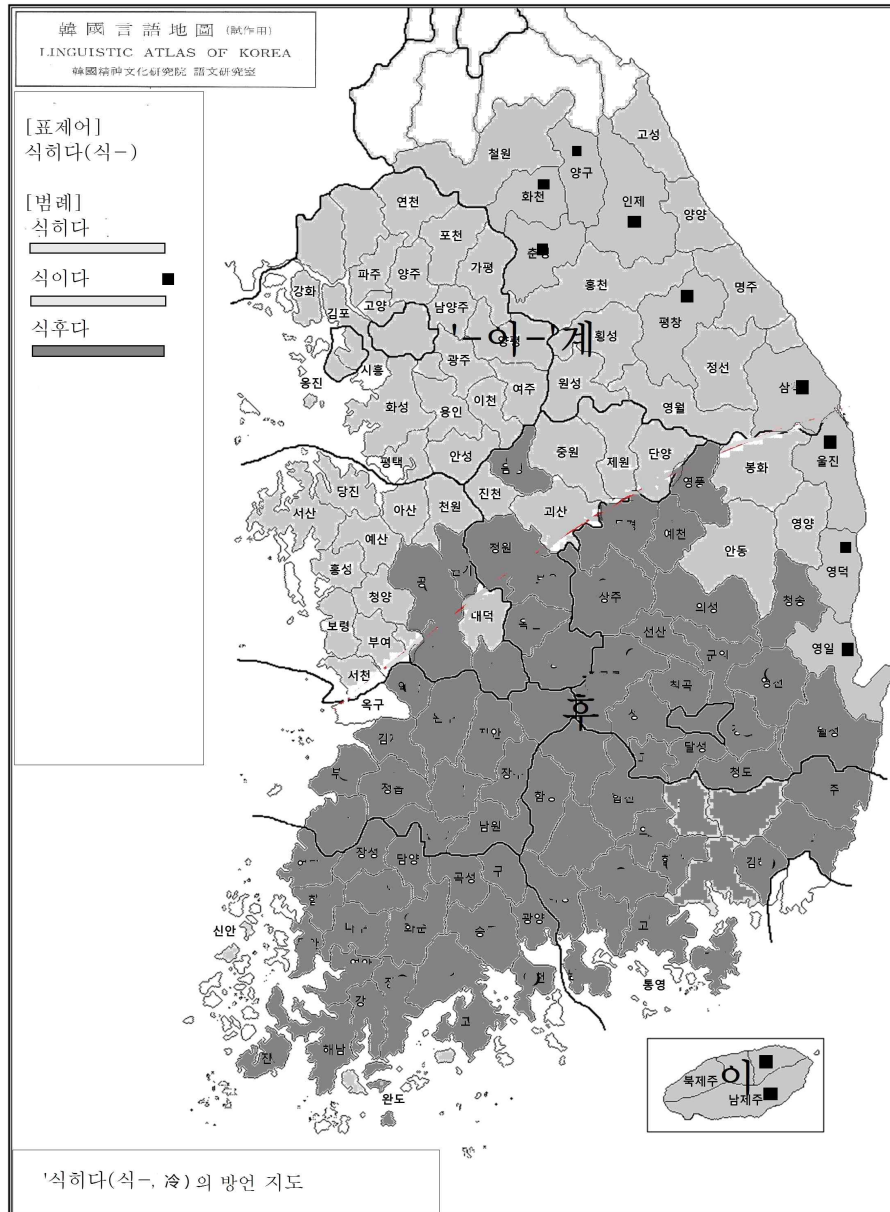
[지도12]는 ‘식히다’의 방언 지도이다. [지도11]과 마찬가지로 ‘-후-’ 결합형을 지도에서 진하게 표시하였다.

[지도11] ‘씩후다’와 [지도12] ‘식후다’의 방언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ㄱ’ 발음 여기에 사동접미사 ‘-이-’와 ‘-후-’가 결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계와 ‘-후-’계로 크게 양분된다. 특히 경계선에 위치한 <충청>과 <경북>은 하위 방언에 따라 ‘-후-’ 결합형과 ‘-이-’ 계 접미사 결합형을 모두 보인다. 즉 중심지역과 잔재지역의 언어 특징을 모두 보이는 전이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111)</sup>

111) 어떤 개신파의 ‘중심지역, 전이지역, 잔재지역’에 대해서는 정승철(2013)을 참고할 수 있다. 어떤 개신파에 대하여 그 영향이 매우 강력한 지역을 중심지역(center of innovation)이라 하며, 그러한 개신파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지역을 잔재지역(relic area)이라 한다. 중심지역과 잔재지역 사이에 전이지역(transition area)이 존재한다.



[지도12] '식히다'의 방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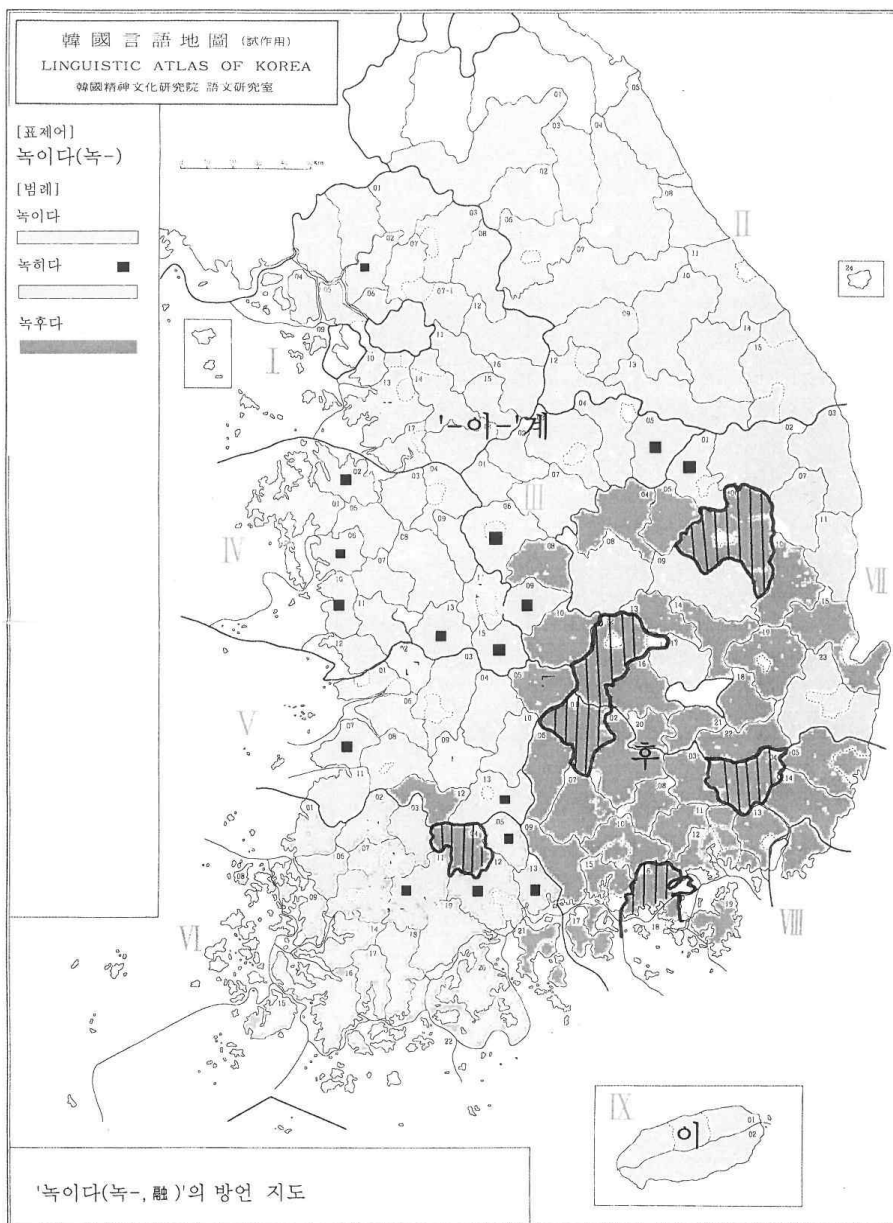


[지도13]은 ‘녹이다’의 방언 지도이다. 크게 ‘-이-’계 접미사와 ‘-후-’계 접미사로 나뉜다. ‘-이-’계에는 ‘녹이-’와 ‘녹히-’가 있다. ‘-후-’계가 사용된 지역은 진한 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이-’계와 ‘-후-’계가 모두 나타나는 지역은 수직선으로 표시하였다. (64)는 ‘-이-’계와 ‘-후-’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64)	<u>방언형</u>	<u>분포지역</u>
(ㄱ)	녹히다, 녹후다	<경북 안동·금릉>, <경남 밀양·고성>
(ㄴ)	녹이다, 녹후다	<전북 무주>

‘녹이다(녹-)’의 방언 지도를 보면 ‘녹-’의 ‘-후-’ 결합형은 <경남> 전역과 <전남, 전북, 경북, 충북>에 나타난다. 방언 분포를 바탕으로 ‘-후-’ 결합형은 <경남>으로부터 북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13] '죽이다'의 방언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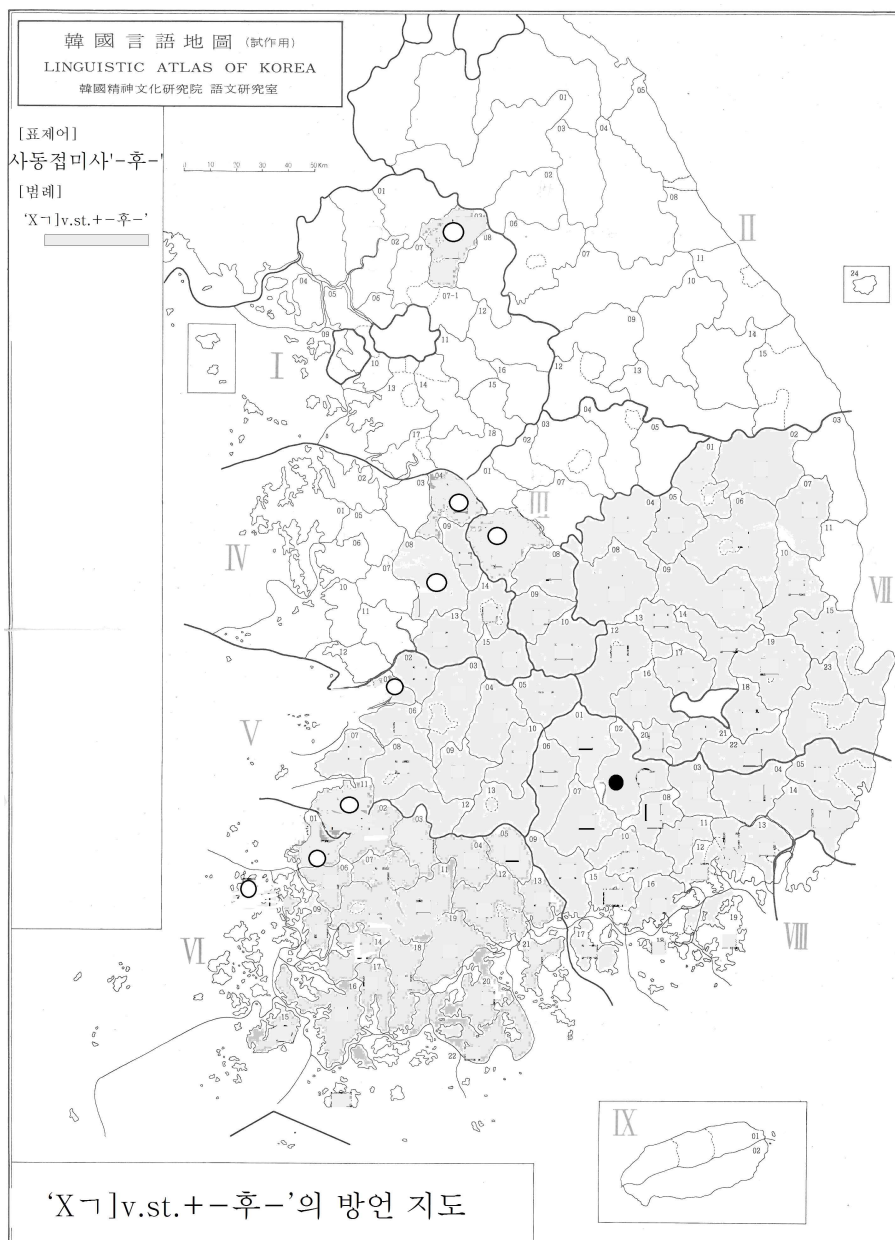
‘속이다’의 방언형을 보면 ‘속-’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속후다’는 <경남>에만 분포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ㄱ’말음 어기의 ‘-후-’결합형의 분포 빈도를 보면 <경남> 방언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ㄱ’말음 어기에 사동접미사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의 중심지가 <경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14]는 ‘씩후다, 식후다, 녹후다, 묵후다’의 방언 분포 지도이다. ‘넓-’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는 <경남 합천>에서만 발견되고 지도에서 ‘●’로 표기하였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로 표시하였다. <경기 포천>, <충북 청원>, <충남 천원>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ㄱ’말음 어기에 ‘-히-’만 결합되고 ‘-후-’의 경우는 결합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서는 ‘-후-’ 결합형이 발견된다. 반면에, <전남 신안·영광>, <전북 옥구·고창> 등의 <전라>의 서해안 지역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ㄱ’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만 나타나지만 《보고서》에서는 ‘-히-’ 결합형도 나타난다.

[지도14]를 통해서 ‘ㄱ’말음 어기의 ‘-후-’ 결합형의 중심 지역이 <경남>임을 알 수 있다. ‘-후-’ 결합형은 <전남, 전북, 충북, 경북>으로 북상하였다. 그러나 <경기, 강원, 제주>, <충북>의 동북 지역, <충남>의 서부 지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도14] 'Xㄱ]v.st.+-후-'의 방언 지도



《자료집》과 《보고서》에서 몇 가지 차이가 관찰된다. 먼저 ‘ㄱ’ 발음 어기인 ‘녹이-(녹-), 썩히-(썩-)’의 경우, 《자료집》에서는 <경기, 제주, 강원> 등의 세 지역에서는 ‘-후-’ 결합형이 분포되지 않지만 《보고서》에서는 <경기>에서도 ‘녹-’에 ‘-후-’가 결합된 ‘녹후다’가 발견된다. 《보고서》에서는 <경기 포천>에서 ‘녹후다’와 ‘녹이다’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자료집》에서 ‘-이-’계 접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보고서》에서는 ‘-후-’ 결합형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 (65)    ㄱ. 녹이-                    <경기 포천>: 녹이- → 녹이-/녹후-, <경북 의성>: 녹이- → 녹후-, <경북 상주>: 녹히- → 녹후-, <경북 월성>: 녹이- → 녹후-/녹히-, <경남 고성>: 녹후-/녹히- → 녹후-, <전남 곡성>: 녹후-/녹히- → 녹후-  
           ㄴ. 썩히-                    <경북 청도>: 썩히- → 썩후-, <충남 공주>: 썩후-/썩이- → 썩후-, <충북 청원>: 썩히- → 썩후-, <충남 천원>: 썩히- → 썩후-, <전북 옥천>: 썩히- → 썩후-.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후-’가 가장 많이 분포된 <경남>과 인접한 지역들이다. ‘썩히다’의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보고서》에서 ‘썩-’에 ‘-후-’결합형은 《자료집》의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썩후다’가 북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보인다. 《자료집》에서 ‘썩히-/썩이-’가 분포되는 <충북 청원>, <충남 천원, 공주> 등의 지역들은 ‘-히-’ 결합형과 ‘-후-’ 결합형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후-’ 결합형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어서 ‘썩후다’가 쓰이게 된다.

둘째, ‘-후-’ 결합형은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에서는 ‘-이-’계 접미사의 결합형보다 우세를 차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은 <강원>의 ‘썩이다’ 영향을 받아서 ‘썩이다’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반면에 <전라>의 서해안 지역인 <전북 고창>, <전남 영광, 진안> 등은 <경기>와

<충남>의 서해안 지역에 분포되는 ‘씩히다’의 영향을 받아서 ‘씩히다’가 쓰이게 된다.

어떤 방언형의 전파는 항상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휘에 따라 확산하는 속도와 방향에 차이가 있다. 특히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시간에 따라 언어의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한편, 평파찰음 ‘ㅈ, ㅊ’에 ‘-후-’가 결합하기도 한다. (66)은 ‘앓후다’의 분포 지역이다. ‘앓-’에 ‘-히-’ 대신에 ‘-후-’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66)	방언형	분포지역
	앓후다	<충북 단양·괴산>, <강원 삼척·정선·명주·영월·평창·인제>, <경북 청송·달성·울진·영천>, <경남 함천·밀양·울주·함안·의창·김해·양산>

[지도15]는 ‘앓히다’의 방언 지도이다. <강원 인제·명주>에서는 ‘앓히다’와 ‘앓후다’가 모두 쓰인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앓히다’가 나타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후-’ 결합형이 나타난다. ‘-후-’ 결합형이 나타나는 지역은 가장 진한 색깔로 표시하였다.

‘앓후다’는 주로 <경남>의 남쪽 지역과 <경북>, <강원>의 영남 지역에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의 동쪽 지역인 <함천, 창녕, 밀양, 김해, 양산, 울주, 의창> 등 지역에서의 사동접미사 ‘-후-’의 생산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ㄱ’ 말음 어기의 ‘-후-’ 결합형의 분포 변화와 달리 전국적으로 ‘앓후다’의 분포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어형인 ‘앓히다’가 더 우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두 자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은 다음(67)과 같다. 지도에 기호 ‘○’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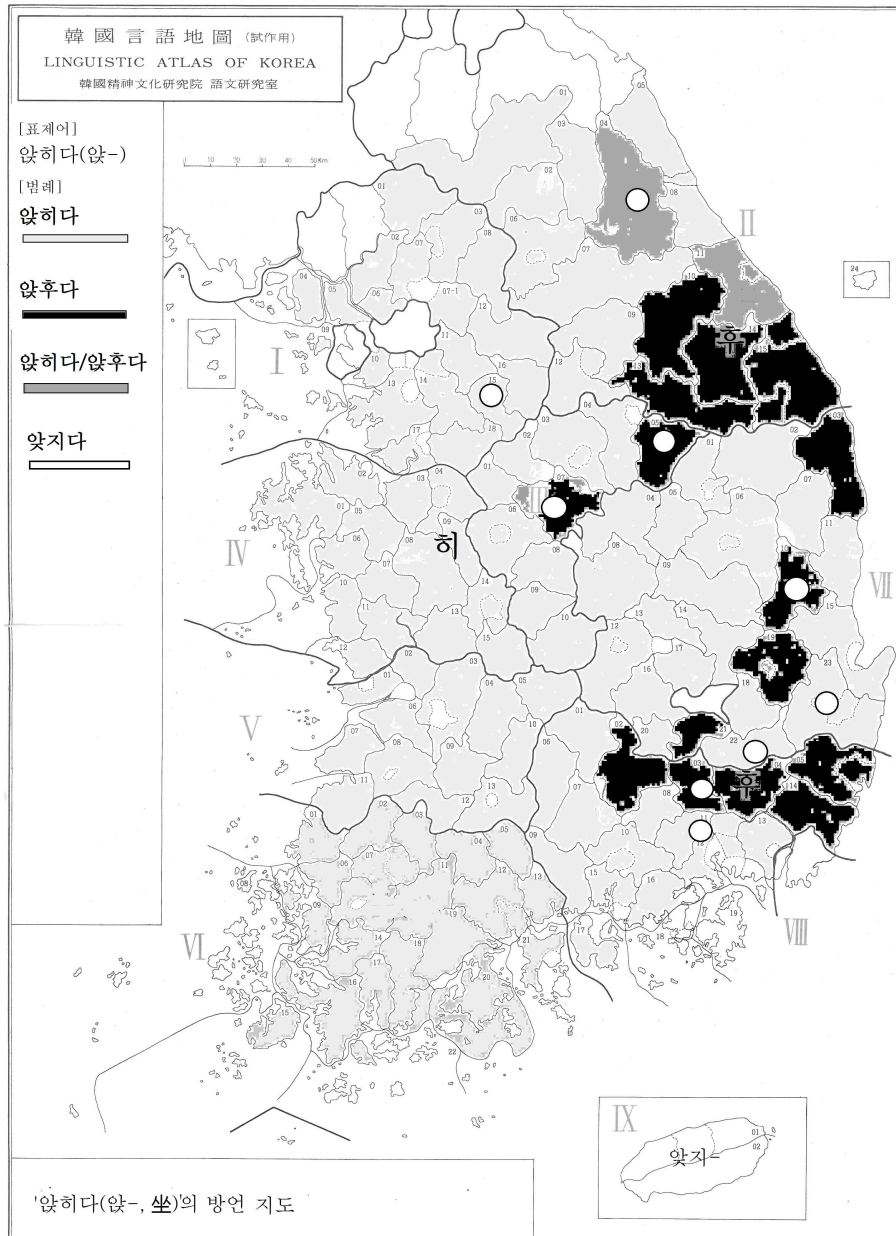
(67) ㄱ. 앉히다 → 앉후다 <경기 이천>, <경북 월성>

ㄴ. 앉후다 → 앉히다 <강원 인제>, <경북 청송>, <경남 의창>, <경남 창녕>, <충북 괴산>, <충북 단양>

한편, ‘앉히다’는 ‘밥을 앉히다’라는 의미를 쓰일 때에는 전국적으로 ‘앉히다’로 나타난다. 동북과 동남 지역에서 많은 방언화자들이 ‘자리에 앉후다’와 ‘밥을 앉히다’와 같이 의미를 구별하여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지도15] '앉히다'의 방언 지도



### 3.2.4. ‘-추-’

‘-추-’는 사동접미사로 ‘르’불규칙 어기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키는데 <전남> 방언에서만 발견된다. 안병희(1959)에서는 ‘-추-’를 15세기에 사동 접미사로서 ‘-오-’의 이형태로 일부 ‘ㅈ’ 말음 어기에 결합되는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전국 방언에서 ‘늦추다, 맞추다’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ㅈ’ 말음 어기에 ‘-후-’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남 승주>에서는 ‘너르-’에 ‘-리-’가 아니라 ‘-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사동사들이 발견된다. 정성경(2003)에 따르면 <전남> 방언에서 ‘-추-’와 결합하는 선행 어기 말음은 모음이거나(‘테추-(테우-)’) ‘ㄹ’인데 ‘ㄹ’은 주로 <전남> 동부 지역에 속하는 <여수, 순창, 광양> 등에서만 확인된다.

### 3.2.5. 소결

‘-우-’계 사동접미사는 ‘-우-, -구-, -쿠-, -후-, -추-’ 등이 있다. ‘-우-’는 모든 방언에 나타나지만 ‘-추-, -후-’ 등은 일부 방언에서만 출현한다. ‘-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데 ‘돋-’ 어기에 결합되기도 한다. ‘-구~쿠-’는 일반적으로 유음, ‘ㄹ’불규칙 용언 어기, 비음, 평파열음 ‘ㄷ’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유음이나 ‘르’불규칙 용언 어기에 ‘-리-’ 대신에 ‘-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주로 <강원, 경북, 충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경남, 전남, 제주>의 전역이나 <충남>의 서부 지역, <전북>의 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비음인 ‘ㄹ’으로 끝나는 어기의 ‘-구-’ 결합형은 <경북, 경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구-’ 대신에 유기음 ‘-쿠-’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데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쿠-’는 <강원>에서만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후-’는 일반적으로 평음인 ‘ㄱ, ㅂ,

ㅈ'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주로 'ㄱ'으로 끝나는 어기에 '-후-'가 결합한다는 점이다. '씩히다, 녹이다, 식히다, 속이다' 등의 방언 분포를 통해서 'ㄱ' 말음 어기의 '-후-' 결합형의 중심 지역이 <경남>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경남>에서 <전남, 경북, 전북, 충북>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앉히다'는 <경남>의 남부와 <강원>의 남부에서 나타난다. <경남 합천>에서는 '눕히다'도 발견된다. 따라서 <경남>의 동부인 '합천, 창녕, 밀양, 김해, 양산, 의주, 의창' 등에서의 '-후-'의 파생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추-'는 <전남 승주>에서만 '널추다'가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표10]과 같다.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10]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결과 비교

사동사	자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녹이- (融)	자	-이- -히-	-이-	-이- -히- -후-	-이- -히-	-이- -히- -후-	<b>-히-</b> -후-	-이- -히- -후-	-이- -히- -후-	-이-
	보	-이- -히- <b>-후-</b>	-이- <b>-히-</b>	-이- -히- -후-	-이- -히-	-이- -히- -후-	-후-	-이- -히- -후-	-이- -히- -후-	-이-
씩히- (腐)	자	-이- -히-	-이- -히-	-이- -히- -후-	<b>-이-</b> -히- -후-	-이- -히- -후-	<b>-히-</b> -후-	-히- -후-	-후-	-이-
	보	-이- -히-	-이- -히-	-이- -히- -후-	-히- -후-	-이- -히- -후-	-후-	-히- -후-	<b>-히-</b> -후-	-이- <b>-히-</b>
앉히- (坐)	자	-히-	-히- -후-	-히- <b>-후-</b>	-히-	-히- -후-	-히- -후-	-히-	-히-	-지-
	보	-히- <b>-후-</b>	-히- -후-	-히-	-히-	-히- -후-	-히- -후-	-히-	-히-	-지- <b>-히-</b>
숨기- (隱)	자	-기-	-기-	-기-	-기-	-기- -구- -쿠-	-기- -쿠-	-기-	-기-	곱지-
	보	-기-	-기-	-기-	-기-	-기- -구-	-기- -쿠-	-기-	-기-	곱지- - 기

						-쿠-				-112)
굶기- (飢)	자	-기-	-기-	-기-	-기-	-기-	-기- -구-	-기-	-기-	-지-
	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지- -기 -113)
신기- (履)	자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지-
	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지-
알리- (知)	자	-리-	-리- -기- -구-	-리- -구-	-리- -구-	-리- -기- -구-	-리- -기- -리우-	-리-	-리-	-리-
	보	-리- -구-	-리- -기- -구-	-리- -구-	-리- -기- -구-	-리- -기- -구-	-리- -리우-	-리-	-리- -리우-	-리-
얼리- (凍)	자	-리- -구-	-리- -구-	-구-	-리- -구-	-구- -우-	-구- -우-	-리- -구- -리우-	-리- -우-	-리- -리우-
	보	-리- -구-	-리- -구-	-리- -구-	-리- -구-	-리- -구- -우-	-리- -우-	-리- -구-	-리- -우- -구-	-리- -리우-
말리- (禁)	자	-리-	-리- -기-	-리-	-리- -기-	-리- -기-	-리- -기-	-리- -기-	-기-	-리-
	보	-리-	-리-	-리-	-리- -기-	-리- -기-	-리- -기-	-리- -기-	-기-	-리-
말리- (乾)	자	-리-	-리- -리우-	-리- -리우-	-리-	-리- -우-	-리- -우-	-리-	-리- -리우-	-리우-
	보	-리-	-리- -우	-리- -리우- -우쿠-	-리-	-리- -리우- -우-	-리우- -우-	-리- -리우-	-리- -리우-	-리- -리우-

요약하자면 표준 한국어에서는 ‘ㄱ’ 발음 여기에 ‘-후-’ 결합형, ‘앓후다’, ‘ㄹ’ 발음 여기와 ‘-기-’, ‘-우-’, ‘-구-’ 결합형 등이 나타나지 않지만 방언에서는 확인된다.

112)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13) <서귀포시 호근동>

114) <강원 삼척>

‘늑후다, 썩후다’의 분포 변화와 같이 ‘-후-’ 결합형은 전국적으로 분포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얼구다’의 분포 변화와 같이 ‘-구-’ 결합형은 축소되고 점점 ‘-리-’로 대체된다.

여러 형태들이 공존하는 두 형태의 경계 근처에 있는 전이 지역에서 변화가 훨씬 쉽게 일어난다. ‘ㄹ’ 말음 어기와 ‘-우-’ 결합형의 중심지인 <경남>과, ‘ㄴ’ 말음 어기와 ‘-기-’ 결합형의 중심지인 <전남>에서는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두 형태가 공존하는 전이지역에서는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로 대체되거나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형태가 생성하게 되는 변화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언어 변화는 표준어의 영향을 받거나 인접해 있는 지역 간에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 4. 결론

본고는 현대 한국어 전국 방언의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방언 간의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자료집》과 《보고서》의 약 20~30년의 격차로 인해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를 관찰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현대 한국어의 사동사와 사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았다. 표준어에 비해서 방언에서는 더 다양한 사동사의 형태가 나타난다. 2.2.에서는 《자료집》과 《보고서》의 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수집된 방언형을 형태 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이우-’, ‘-리-’, ‘-리우-’, ‘-기-’, ‘-키-’, ‘-지-’, ‘-우-’, ‘-구-’, ‘-쿠-’, ‘-후-’, ‘-추-’의 사동접미사와 그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2.3. 소절에서는 각 방언에 따라 사동접미사의 목록과 결합 양상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3.1.에서 ‘-이-’계 사동접미사 ‘-이-, -이우-, -히-, -리-, -리우-, -기-, -키-, -지-’등의 분포와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열음 가운데 평음이나 격음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음 ‘ㅎ’,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평파열음 중에 ‘ㄱ’ 발음 어기에만 결합한다. 하지만 동일한 ‘ㄱ’ 발음 어기라도 방언에 따라 결합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 충남, 전남, 경북>에서는 ‘-이-’, ‘-히-’ 결합형이 공존되지만, <전북>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강원,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ㄱ’ 발음 어기에 ‘-이-’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경남>에서는 ‘ㄱ’ 발음 어기와 ‘-히-’ 결합형은 나타나지만, ‘-이-’ 결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ㄱ’ 발음 어기의 ‘-히-’ 결합형이 <경남>에서부터 서북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만 결합하고 ‘-히-’는 평파열음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시킨다.

‘-리-’는 모든 방언에서 유음이나 ‘ㄷ’불규칙, ‘ㄹ’불규칙 용언 어기에만 결합

한다. ‘-리우-’는 ‘-리-’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경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난다. ‘-기-’는 모든 방언에서 비음 ‘ㄴ, ㄹ’으로 끝나는 어기, 마찰음 ‘ㅅ’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도 결합한다. 그 밖에 ‘뜯-, 말-’에 결합되어 형성된 ‘뜯기다, 말기다’도 전국에서 분포된다. 가장 큰 특징은 <경남, 전남, 경북> 등의 지역에서 ‘ㄹ’ 말음 어기에 ‘-기-’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가 결합할 때에는 수의적으로 경음이나 격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키-’는 <강원, 충북, 경북> 등의 지역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특히 <강원>에서는 ‘-키-’가 중첩접사로 나타난다. ‘-지-’는 <제주>에서만 보이는 접미사인데 주로 ‘-기-, -히-’가 결합되는 환경인 비음이나 마찰음 ‘ㅅ’, 평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ㄱ’ 말음에 ‘-이-, -히-’가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양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다.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기-’ 결합형이 <강원>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며, 전국적으로 분포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남>에서 아직 많이 확인된다.

‘-우-’계 사동접미사는 ‘-우-, -구-, -쿠-, -후-, -추-’ 등이 있다. ‘-우-’는 모든 방언에서 나타나지만 ‘-추-, -후-’ 등은 일부 방언에서만 출현한다. ‘-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하고 제한적으로 ‘-돋-’어기에도 결합한다. ‘-구-, -쿠-’는 일반적으로 유음, ‘ㄹ’불규칙 용언 어기, 비음, 평파열음 ‘ㄷ’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유음이나 ‘ㄹ’불규칙 용언 어기에 ‘-리-’ 대신에 ‘-구-’ 결합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로 <강원, 경북, 충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경남, 전남, 제주> 전역이나 <충남>의 서부 지역, <전북>의 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비음인 ‘ㄹ’으로 끝나는 어기의 ‘-구-’ 결합형은 <경북, 경남>에서 출현한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서 ‘-구-’ 대신에 유기음 ‘-쿠-’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데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쿠-’가 <강원>에서만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후-’는 일반적으로 평음인 ‘ㄱ, ㄴ, ㅈ’으로 끝나는 어기에 결합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방언에서 ‘ㄱ’으로 끝나는 어기에 ‘-후-’ 결합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썩히다, 녹히다, 식히다, 속히다’ 등의 방언 분

포를 통해서 ‘ㄱ’ 발음 어기의 ‘-후-’ 결합형의 중심지역이 <경남>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경남>에서 <전남, 전북, 충북, 경북>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앞후다’는 <경남>의 남부와 <강원>의 남부에서 나타난다. <경남 합천>에서는 ‘넓후다’도 발견된다. 따라서 <경남>의 동부인 ‘합천, 창녕, 밀양, 김해, 양산, 의주, 의창’ 등에서의 ‘-후-’의 파생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추-’는 <전남 승주>에만 ‘넌추다’가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계 사동접미사의 방언 분포의 경우, ‘ㄱ’ 발음 어기에 ‘-후-’의 결합형은 확산되는 반면, 유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구-’의 결합형은 전국적으로 분포 범위가 축소되고 점점 ‘-리-’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 역시 몇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첫째, 어휘에 따라 분포 범위와 확산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둘째, 일반적으로 어떤 방언형이 분포되는 중심지역에서는 변화가 적고 여러 형태들이 공존하는 경계선 근처에 있는 전이지역에서는 변화가 더 많이 확인된다.

본고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자료의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자료집》과 《보고서》 두 가지 자료만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사동사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본고에서는 사동사를 중심으로 사동접미사의 실현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를 살펴보았고 피동접미사의 실현 양상과의 비교는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향후에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전국 방언의 피·사동접미사의 양상을 비교한 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고는 전국 방언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어 사동접미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결합 양상에 따른 방언 분포와 20~30년 간에 사동접미사의 분포 변화를 밝힘으로써, 방언학적인 연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정희(2008), 제주방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연구, 어문연구 57.
- 고동호(1995), 제주방언의 움라우트 연구-형태소 내부를 중심으로, 언어학 17, 언어학회.
-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곽충구(1991),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충구(2004), 함북방언의 피·사동사, 어문학 85, 어문학회.
- 곽충구(2014), 육진방언의 종결어미와 청자높임법, 방언학 20.
- 구본관(1990), 경주 방언 피동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태학사.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환(2012), 경북 방언의 피동사와 피동접미사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 김세환(2014), 경북 방언의 사동사와 사동접미사의 변화, 방언학 20, 방언학회.
- 김소영(2014), ‘꽃-...꽃-’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학 70, 국어학회.
- 김아름(2008),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영(2013), 강릉 방언의 이중(二重) 피·사동 접사 연구, 국어국문학 164.
- 김용배(1971), 전남방언의 접미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완진(1963), 국어 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 김완진(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 논문집10.
- 김완진(1973), 國語 語彙 磨滅의 研究, 진단학보 35.
-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주필(1988),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분화과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3.

- 김차균(1992), 경남 방언의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와 음운,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 김태균(1983), 《함북방언사전》, 京畿大學校 出版局.
- 김한결(2009), 단일 피·사동접미사와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에 대한 검토: 남광우(1962)와 구본관(1998)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현(2001), 활용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 후음 말음 어간으로의 변화에 한하여-, 국어학 37, 국어학회.
- 김형배(1997), 《국어의 사동사 연구》, 박이정.
- 남광우(1962), 사동·피동형의 역사적 고찰: ‘-이-, -우-’ 보조어간이 붙는 것을 중심으로, 국어학논문집 일조각.
- 남수경(2007),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순희(2007), 피·사동사 형성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글 277, 한글학회.
- 박종희·권병로(2012), ㄱ구개음화 현상의 인지적 고찰, 한글 291, 한글학회.
- 박희문(2009), 한국어 이중피동구문의 핵어문법적 분석, 언어연구 25-3, 한국현대언어학회.
- 백두현(1990), 영남 문헌어에 반영된 방언적 문법형태에 대하여, 어문론총 24.
- 백채원(2017),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상조(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신승용·안미애(2012), 유성 자음 뒤 경음화의 특성 및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인문학 22.
- 안병희(1959),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유피재(2009), ㄷ불규칙동사의 역사적 변화, 어학연구 4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은상현(2006), 강원지역어의 사동·피동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갑(2005), 전남방언의 과생접미사(Ⅱ), 인문논총 54,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 방언사전》, 태학사.
-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병근·정인호(1999), 《중국 조선어 방언 조사》,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의 역사문화, 서울대출판부, 1~75.
- 이상억(1980), 사동·피동 어간형성 접미사에 대한 다각적 고찰, 어문논집 21, 민족어문학회.
- 이상억(1999), 《국어의 사동·피동구문 연구》, 집문당.
- 이승녕(1972), 17세기 초기 국어의 형태론적 고찰, 동양학 2.
- 이승녕(1985), 《濟州島 方言의 形態論的研究》, 탑출판사.
- 이춘영(2016), 연변 지역어의 접미과생법 연구-원 함북 경원 지역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진호(2006), 우리말 접사의 음운론적 고찰, 우리말 연구 19.
- 임홍연(2015), 함북방언의 과생접미사-《함북방언사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2015), 중세국어 피·사동사 과생법 연구의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21.
- 정성경(2013), 전남 방언의 과생 접사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2007), 피동사와 피동접미사, 진단학보 104.
- 정승철(2013ㄱ), ‘고무래’의 방언 분포와 방언형의 분화, 국어학 67, 국어학회.
- 정승철(2013ㄴ),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용호(1988), 《함경도 방언 연구》, 교육도서출판사.
-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정인호(2004), 원평북방언과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정의향(2010), 평북 철산 지역어의 접미파생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향란(2004), 연변지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은숙(2007), 중첩피동의 의미기능과 인지구조, 어문논집 37.

조성금(2015), 후기 근대한국어 접미파생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명옥(2008), 《현대한국어의 공시 형태론: 경주지역어를 실례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최윤결(1981), 《조선어 문법》, 신양: 료녕 인민 출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I - IX.

한재영(1984), 중세국어 피동구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1.

허웅 (199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황대화(1986), 《동해안방언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rie, B.(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The Univ. of Chicago Press.

<中文摘要>

## 现代韩国语方言的使动派生接尾词研究

方 园

首尔大学

研究生学院

国语国文系 国语学

本文从语言学和与之相关的方言学视角出发，通过考察现代韩国语全国方言的使动接尾词的种类，分析了词干和使动词缀结合条件下的音韵论环境，观察并分析了每种使动接尾词的地理分布。方言的差异导致使动接尾词出现的环境各不相同。本文将每种使动接尾词出现的音韵论环境视作一种语言现象，观察每种现象在全国不同方言的分布特点，并通过绘制方言地图推定出部分语言现象的发起地和传播路径。

韩国精神文化研究院基于1987年至1995年对全国方言的调查，出版了《韓國方言資料集》；韩国国立国语院基于2004年至2014年对全国方言的调查，出版了《方言调查报告书》；本文收集了这两部文献中的全部使动派生词，有针对性地参考了朝鲜方言(黄海道、咸镜道、平安道)和中国朝鲜族的相关方言资料，通过对使动词的形态分析，确定了现代韩国语所有使动接尾词的种类和地理分布。本文主要运用共时的语言分析方法进行形态分析，因在诸多情况下方言中的被使动词保留了历史痕迹，因此研究中参考了15世纪中世韩国语资料。

使动和被动一直是语言学研究的热点。韩国语中有很多使动表达方式，派生使动词由谓词词干和接尾词结合派生而成，但是在标准韩国语中，词干和接尾词的结合遵循一定的音韵论和形态论规则，但这些规则在方言中的表现形式存在很大差异。另外，在类型学(linguistic typology)中，使动和被动虽均属于态(voice)的范畴，但在很多语言中存在很大差异；然而在标准韩国语中，被动和使动派生

词具有很多相似之处，甚至在形态上完全一致，但这一特点在韩国各方言中却很难找到。韩国语方言中，使动的接尾词种类多于被动的接尾词，词干和词缀相结合时具有较大的任意性和不规则性。到目前为止，前人对特定方言的使动派生词进行了大量调查研究，由于各方言之间差异过大且很难找到规律性，因此前人未对全国方言的分布特点和差异进行观察研究。

众所周知，语言具有可变性。方言学中认为，某种语言现象可通过地理环境和文化交流等渠道传播。本文主要搜集的两本方言资料在调查地点和调查时间上差异很大。《资料集》出版于二十世纪末，调查地点是京畿道、江原道、忠清道、全罗道、庆尚道以及济州道。而《报告书》出版于二十一世纪初，是韩国最新的方言资料集，但调查地点存在一定局限性。这两本资料的调查间隔相差20-30年，比较研究其调查结果，对揭示近20-30年韩国语使动词的变化规律具有重大意义。

包括序言和结论在内，本文共四章。第二章从语言学角度对所收集的所有使动词进行了形态分析；确定了使动接尾词种类和结合方式；按照使动接尾词的种类进行了分类；本章小结中以表格形式对方言的形态差异进行了整理和对比。第三章主要通过方言学和语言学的综合视角考察了每种使动接尾词的地理分布和变化；通过有针对性地绘制方言地图，分析了“方言岛 (language island)”等现象，推测出一些特殊语言现象的发起地和传播路径，分析了这些语言现象在最近20-30年的传播变化及其原因。

关键词：使动派生词，方言学，语言学，音韵论环境，形态论，方言分布，发起地，传播方向。

学号：2016-27646